

교육과정 및 임상실습환경 단위 별 조사 자료집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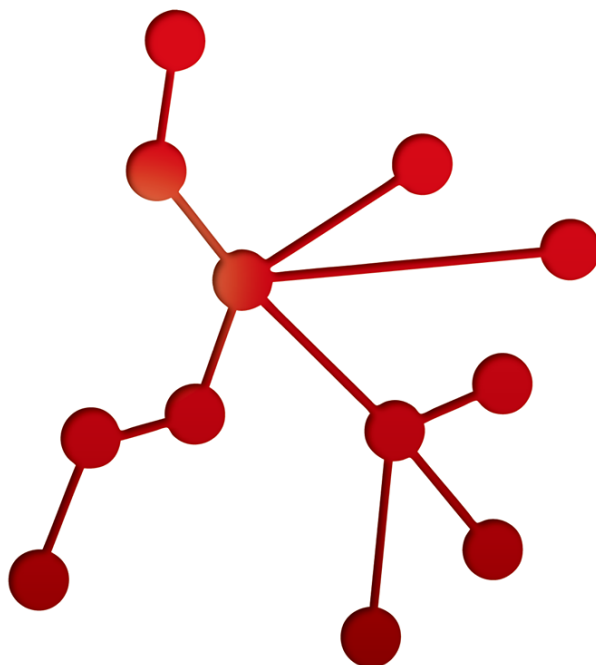
《 발 행 일 》

2021년 3월 2일

《 집 필 진 》

36기 교육국장 가천대학교 안병웅
36기 교육국장 동국대학교 한승훈
교육집행국원 가천대학교 김지석
교육집행국원 가천대학교 윤지환
교육집행국원 가천대학교 최호진
교육집행국원 대구한의대학교 임효경
교육집행국원 대구한의대학교 장세린
교육집행국원 대구한의대학교 조 은
교육집행국원 대전대학교 김태준
교육집행국원 동국대학교 김진아
교육집행국원 동국대학교 이건호
교육집행국원 동의대학교 송수민
교육집행국원 세명대학교 김소연
교육집행국원 세명대학교 이기은
교육집행국원 원광대학교 허 윤

교육과정 및 임상실습환경 단위 별 조사 자료집 2020



전한련 36기 상임위원회
2020년 전한련 교육국 집행위원회

머리말

안녕하십니까? 전국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이하 전한련) 36대 교육국장을 맡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29대 학생회장 안병웅입니다. 지난 35대 교육국에서는 KAS2021-2025(이하 KAS2021)과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집을 집필하였습니다. 저희 교육국장들은 그 자료집을 보면서 값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거처온 기초 한의학교육의 내용과 자료들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임상 한의학 교육의 내용과 자료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각 학교별로 교육 커리큘럼에 차이가 있어서 ‘각각의 장점을 취합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한련 36대 교육국은 ‘어떻게 하면 전한련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임상실습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자신들이 배워갈 임상 교육에 대해 알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거쳐 2020 전한련 교육국 자료집 제작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함께 전한련 교육국 자료집 제작 및 교육국 정책&사업을 진행할 교육집행위원을 선발하였고, 교육집행위원들과 함께 총 10학교를 방문하여 병원장님 또는 교육담당 교수님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각 학교별 커리큘럼을 추가하여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노력해주신 모든 교육집행국원분들과 자료집 집필에 도움을 주신 36기 상임위원회와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련 36기 교육국장 가천대학교 안병웅>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안병웅 학생회장님과 함께, 전한련 36기 교육국장을 역임했던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한승훈입니다. 지난 35기 교육국에서 작성해주신 교육국 자료집을 보고 36기에서 새로운 교육국 자료집을 집필하는 것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36기 교육국에서는 안병웅 교육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임상실습현황조사와 더불어 각 학교의 커리큘럼을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

이 자료가 전한련 소속의 모든 학생들께서 각 학교 교육과정의 특색있는 요소와 장점을 취하여 각자의 학교 교과과정 개선 요구를 하는 과정에 잘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1년 간 자료집을 준비했습니다. 나아가서 한의학 교육에 대해 학생 분들의 관심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올해, 전한련 36기 상임위원회에서는 국 별로 집행국을 두어 실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체계를 편성하는 방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국에서는 전한련 소속인 학교에 재학 중이신 분들을 집행국원으로서 선발하여 함께 활동을 하였습니다. 저희 교육국장 2인과 함께 집행국 체계 내규 마련, 통합의대 의제에 대한 논의, 병원 면담 참여, 교육국 자료집 집필 등을 하는 데에 힘써주셨던 모든 교육집행국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이 자료집이 나오기 위해 각 학교 방문면담 일정을 조율해주시고, 집행국 체계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셨던 전한련 36기 상임위원회와 중앙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친절하게 면담에 응해주신 각 학교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련 36기 교육국장 동국대학교 한승훈>

목 차

I. 서 론	7
II. 학교별 교육현황 (교육과정, 면담록)	15
1. 가천대학교	17
2. 경희대학교	24
3. 대구한의대학교	28
4. 대전대학교	35
5. 동국대학교	44
6. 동신대학교	51
7. 동의대학교	57
8. 부산대학교	65
9. 상지대학교	68
10. 세명대학교	76
11. 우석대학교	83
12. 원광대학교	89
III. 결론 및 후기	97

<참 고>

경희대학교의 경우, 전환권 소속이 아니므로 협조요청의 절차가 복잡하여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출입제한 상황 발생으로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두 학교는 현행교육과정 부분만 수록하였습니다.

I. 서론

《Contents》

한평원에서 제시한 KAS2021(KAS2021-2025) 인증평가 기준의,
시행 관련 법령, 목적 및 기대효과를 알아보고,
BME2015와 비교해보았습니다.

또한, 발표된 인증평가편람 내에 제시된
정량적(수치화 가능한) 기준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1. 한의학교육인증평가기준 2021-2025(이하 KAS2021)

가. KAS2021의 목적 및 기대효과

- 1) 양질의 한의학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적 책무성을 제고
- 2) 한의학교육기관의 교육과정, 교육여건, 교육활동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하여 제시
- 3) 한의학교육기관 스스로 교육여건과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지원함
- 4) 한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 구축
- 5)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6) 국제 수준의 한의사 양성을 위한 한의학교육 프로그램 책무성 제공

나. KAS2021의 실시 근거

1) 법령에 근거한 평가·인증 의무화 규정 제정

고등교육법(개정 2015.12.22.)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 기관의 요건과 평가·인증 운영 조직 및 절차에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평가·인증 활동의 기본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법령	내용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평가)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 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인증 절차) ①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과정운영학교”라 한다.)는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평가·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18.7.10.][대통령령 제29032호, 2018.7.10., 일부개정]

<표 1> 고등교육법 법령 및 시행령

의료법에서도 고등교육법과 관련한 평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대학 졸업자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2016.5.20.)으로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이하 ‘한의과대학’) 한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한평원의 평가·인증 절차 및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법령	내용
의료법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 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국가시험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표 2> 의료법 및 부칙

다. KAS2021의 원칙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는 기본의학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기본의학교육 질 향상 국제표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2015 revision, BME)을 제시했고, 국내에서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KIMEE)은 세계의학교육협회 기본의학교육 표준에 따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평원은 2018년 6월 한의과대학장협의회가 천명한 한의학교육 방향성 및 2018년 5월 한평원 이사회가 선포한 평가인증 기준 방향성에 따라 세계의학교육협회 기본의학교육 표준을 충족하고 그 이상의 한의학교육 수준을 유지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과 국내 한의학교육의 기존 상황을 고려해 2021년부터 전면 적용될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라. 원칙에 의거한 목표 : 역량기반 한의학교육의 완성

1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의학계 거버넌스 구성,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었고, 이후 평가·인증 기준에서는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의 완성에 평가의 주안점을 둘 것임을 밝혔습니다.

KAS2021 평가·인증 기준은 기존에 밝혔던 대로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의 완성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고, 세계의학교육의 흐름에 따라 세계의학교육협회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WFME BME) 이상의 수준을 충족하는 한의학교육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 KAS2021의 평가부문

KAS 2021의 평가부문			BME 2015의 평가부문	
<표 3> 평가영역 목록 및 평가부문 수				
평가영역		평가부문 수		
1영역	사명과 성과	4	1. Mission and outcomes	
2영역	교육프로그램	8	2. Educational programme	
3영역	학생평가	2	3. Assessment of students	
4영역	학생	4	4. Students	
5영역	교수	2	5. Academic staff/faculty	
6영역	교육자원	6	6. Educational resources	
7영역	교육프로그램 평가	4	7. Programme evaluation	
8영역	대학운영체제와 행정	5	8.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9영역	지속적 개선	1	9. Continuous renewal	
합계		36		

<표 3> KAS2021의 평가기준과 BME2015의 평가기준

KAS2021의 평가영역과 평가부문은 9개 평가영역 36개 평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AS2021의 전체 구성은 WFME BME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함. 위의 도표를 통해 KAS2021과 BME2015의 평가부문이 상당한 유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AS2021 평가기준은 기본기준과 우수기준으로 구분하고, 기본기준은 P(Principal standards), 우수기준은 A(Advanced standards)로 표기하며, WFME BME 국제표준은 Basic standards(B)와 Quality development standards(Q)로 구분합니다.

기본기준(P)은 한의과대학의 졸업 전 교육과정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으로, 교육인증평가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우수기준(A)은 한의과대학 졸업 전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기준으로, 인증의 발전방향에 해당합니다. 세계 의학교육의 모범 사례에 준하여 한의과대학이 자발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KAS2021에서는 각 평가기준에 대해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근거 자료>, [주] 등을 통해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 요건, 자료, 용어 개념 등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 KAS2021의 정량적 평가항목(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및 주석)

다음은 KAS2021의 평가항목 중, 정량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을 선별한 것입니다. 정확한 수량 및 수치가 기준으로서 명시되어있는 항목을 선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정성적 평가항목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기본기준(P)이 많으나, 해당 항목들에 관하여서는 KAS2021에 입각한 동국한의 현황 차례에서 언급하였습니다.

본문에 기재한 내용은 2019년 12월 19일에 배포된 KAS2021에서 발췌한 원문으로, 자의적 해석요소를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P2.3.1의 [주]

- 기초의학과 기초한의학의 수업 시간 비율은 50:50을 원칙으로 한다.

P2.4.1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2. 인문사회의학 과목이나 강좌를 학년별로 최소 1개 이상 개설하고,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과 의사소통에 관한 수업내용을 포함하여 적절히 운영한다.
3. 인문사회의학 전체 과정의 20% 이상에서 전통적 강의식 방법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시행한다. 학습평가 방법도 전통적 지필시험 이외의 다양한 방법이 20% 이상 이상이다.

P2.5.1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5. 임상의학 전체 수업시간의 30% 이상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
7. OSCE 항목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한 기본술기 항목 중 80% 이상을 훈련한다.
8. CPX 항목은 학생 1인당 최소 10개 항목을 평가한다. 반드시 표준화 환자를 통한 훈련 및 평가를 시행한다.

P2.5.3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2. 임상실습을 50주, 1500시간 이상 운영한다.

P2.6.2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1. 관련 학문, 학과, 과정이 수평통합(horizontal/concurrent integration)된 교육과정을 50% 이상 운영한다.

A2.6.1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1.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인문사회의학, 임상의학이 수직 통합(vertical/sequential integration)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A2.6.2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1. 선택과목을 전체 강의 시간의 10% 이상 운영한다.

P4.3.2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4. 최근 2년간 총 등록금대비 교내 장학금 지급 비율이 5%이상이다.

P5.1.2.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1.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인문사회의학 등 분야를 합쳐 소속 전임교원 최소 15인을 확보한다.
2. 임상의학 분야는 진료과와 진료지원과 8개 이상에 소속 전임교원 15인 이상을 확보한다. 단, 한방내과학, 한방부인과학, 한방소아과학, 한방신경정신과학, 침구과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학 등 한의사전문의 8개 분야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다.

P5.2.2.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3. 교수개발 실적은 소속 전임교원 1인당 연간 6시간 이상 이수자가 80% 이상이다. 단, 장단기 해외연수자는 제외해 집계한다.

P5.2.2.의 [주]

- 소속 전임교원의 최근 2년간 대학 내부 연구비가 1인 당 연평균 100만원 이상이다.
- 신임교원은 최초발령 후 1년 이내에 의학교육 연수과정을 8시간 이상 이수하며, 한의과대학은 이를 지원한다.

P6.1.1.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3. CPX, OSCE 등을 위한 전용공간 및 기자재가 포함된 임상술기센터를 갖춘다.
9. 컴퓨터 기반 시험(computer-based test, CBT)을 실시할 수 있는 전용 공간과 기자재를 갖춘다.
10. 전임교원의 독립된 개인 교수실과 적절한 실내설비를 제공한다.

P6.2.2.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2. 교육병원으로서 적합한 유효병상은 100병상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P8.3.2.의 [주]

-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예산은 연간 천만 원 이상이다.
- 학생교육 관련 직접 경비(예 : 실습비, 기자재비용 등) 내역을 기술한다. 연간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비율이 2% 이상이다.

II. 학교별 교육현황

《《Contents》》

1. 각 학교 별 전공과목 개설현황을 도표로 수록하였습니다.
 - 전공필수, 전공선택 항목을 분리하였습니다.
 -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오기된 사항이 있다면, 실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각 학교 별 교육과정 및 입상실습 현황에 대한 면담록을 수록하였습니다.
 - 최대한 일관된 공통질문을 바탕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시기와 인원이 상이하여, 질문이 일부 상이한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가천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한의학개론1	1	2	0	
		한의학한문1	2	4	0	
	2	한의학개론2	1	2	0	
		한의학한문2	2	4	0	
예과 2학년	1	동양철학1	1	2	0	
		중급중국어1	1	2	0	
		한의학한문3	2	4	0	
		생화학및실습1	2	2	2	
		의학사1	2	2	0	
		조직학및실습1	2	2	2	
		약용자원학1	2	2	0	
		한의학원리론1	2	2	0	
		발생학	2	2	0	
		의료윤리학	1	2	0	
		의료통계학	1	2	0	
	2	동양철학2	1	2	0	
		중급중국어2	1	2	0	
		한의학한문4	2	4	0	
		생화학및실습2	2	2	2	
		의학사2	2	2	0	
		조직학및실습2	2	2	2	
		약용자원학2	2	2	0	
		한의학원리론2	2	2	0	
		발생학	2	2	0	
		해부학총론	2	2	0	
		본초학총론	2	2	0	
본과 1학년	1	해부학및실습1	3	6	0	
		생리학및실습1	4	5	2	
		원전1	3	6	0	
		본초학및실습1	5	8	2	
		양방생리학및실습1	2	2	2	
		미생물학	2	3	0	
		방제학총론	1	2	0	
	2	해부학및실습1	4	6	2	
		생리학및실습1	4	5	2	
		원전1	3	6	0	
		본초학및실습1	5	8	2	
본과 2학년	1	양방생리학및실습1	2	2	2	
		방제학총론	1	2	0	
		병리학및실습1	3	5	2	
		양방병리학및실습1	2	2	2	
		방제학및실습1	3	5	2	
		진단학1	2	3	0	
		양방진단학1	1	2	0	
본과 2학년	1	약리학및실습1	2	2	2	
		예방의학및실습1	3	4	2	

	2	상한론1	2	3	0	
		경혈학및실습1	3	3	2	
		병리학및실습2	3	5	2	
		양방병리학및실습2	2	2	2	
		방제학및실습2	3	5	2	
		진단학2	2	3	0	
		양방진단학2	1	2	0	
		약리학및실습2	2	2	2	
		예방의학및실습2	3	4	2	
		상한론2	2	3	0	
		경혈학및실습2	3	3	2	
본과 3학년	1	간계내과학1	1	2	0	
		근골과학1	1	2	0	
		부인과학1	1	2	0	
		비계내과학1	1	2	0	
		사상의학1	1	2	0	
		소아과학1	1	2	0	
		신경정신과학1	1	2	0	
		신계내과학1	1	2	0	
		심계내과학1	1	2	0	
		안이비인후과학1	1	2	0	
		영상의학1	1	2	0	
		외과학1	1	2	0	
		임상병리학1	1	2	0	
		임상심리학1	1	2	0	
		재활의학과학1	1	2	0	
		침구학1	2	4	0	
		폐계내과학1	1	2	0	
	2	간계내과학1	1	2	0	
		근골과학1	1	2	0	
		부인과학1	1	2	0	
		비계내과학1	1	2	0	
		사상의학1	1	2	0	
		소아과학1	1	2	0	
		신경정신과학1	1	2	0	
		신계내과학1	1	2	0	
		심계내과학1	1	2	0	
		안이비인후과학1	1	2	0	
		영상의학1	1	2	0	
		외과학1	1	2	0	
		임상병리학1	1	2	0	
		임상심리학1	1	2	0	
		재활의학과학1	1	2	0	
		침구학1	2	4	0	
		폐계내과학1	1	2	0	
		임상실습1	1	0	4	
본과 4학년	1	간계내과학3	1	1	0	
		법의학	1	2	0	
		보건법규	1	2	0	
		부인과학3	1	1	0	
		비계내과학3	1	1	0	
		사상의학3	1	1	0	

		소아과학3	1	1	0	
		신경정신과학3	1	1	0	
		신계내과학3	1	1	0	
		심계내과학3	1	1	0	
		안이비인후과학3	1	1	0	
		외과학3	1	1	0	
		임상실습2	5	0	20	
		임상특강1	1	2	0	
		재활의학과학3	1	1	0	
		추나학1	1	1	0	
		침구학	1	2	0	
		폐계내과학3	1	1	0	
	2	간계내과학4	1	1	0	
		부인과학4	1	1	0	
		비계내과학4	1	1	0	
		사상의학4	1	1	0	
		소아과학4	1	1	0	
		신경정신과학4	1	1	0	
		신계내과학4	1	1	0	
		심계내과학4	1	1	0	
		안이비인후과학4	1	1	0	
		외과학4	1	1	0	
		응급처치	1	2	0	
		임상실습3	5	0	20	
		임상특강2	1	2	0	
		재활의학과학4	1	2	0	
		추나학2	1	1	0	
		침구학4	1	2	0	
		폐계내과학4	1	1	0	

2) 병원 방문 면담록

- 1) 방문장소 : 가천대학교 동인천길한방병원
- 2) 방문일자 : 2020년 8월 12일
- 3) 방문자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안병웅(가천대), 교육국장 한승훈(동국대)
 - 교육집행위원 : 윤지환(가천대), 최호진(가천대)
- 4) 면담교수님 : 송윤경 교수님(가천대학교 동인천길한방병원장)

1.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만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전에 가천대학교의 1주기 평가에 대한 논평을 다시 살펴 보았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천대학교의 장점은 우선 의대와 같이 있어 메디컬(약대, 의대, 한의대) 끼리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천대학교는 약대, 의대, 한의대의 의학계열과 바이오계열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므로 서로 교류를 통해 시너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 학교이며, 위치적인 여건이 좋고, 내부 구성원들의 자질이 우수합니다. 이런 장점들이 언제, 어떻게 발휘 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캠퍼스가 지금 인천과 성남으로 나뉘어져 있어 의대와 같이 있다는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한의대 정원이 30명으로 다른 한의대와 비교하였을 때 적은 편에 속하며 휴학 등의 이유로 30명 미만의 학번도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과 학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 기초와 임상이 교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가천대학교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함께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혹시 현재 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양/한방 협진은 현재 동인천길병원에 가정의학과 교수 한 분이 계셔서 병원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양/한방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범사업을 통해 2차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력병원으로 구월동 소재 길병원(양방)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길병원 쪽으로 환자를 의뢰하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어 통합병원처럼 협진을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 가천대학교의 경우 2021년 2주기 인증평가에 들어가는데, 대학에서는 가천대학교의 2주기 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천대학교는 교육시설 공간 확보를 위하여 1주기 인증평가 시기에 현재의 위치(동인천길한방병원)로 한방병원을 옮겼습니다. 현재 동인천길한방병원의 건물 내에는 1차 교육 관련 시설은 준비되어 있고, 교육병원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병상 수, PBL room, CPX room, 기자재 등이 정량적으로는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수 요소들이 양과 질에서 모두 충분한 상황이라 말씀드리기에는, 분명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환자 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실습에 있어서 환자를 직접 보기보다는 술기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들을 임상에서 적용하는 방법론을 간접적으로 교육하여 임상역량을 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4. 교육인증평가를 받을 시, 그 준비과정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천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개편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가천대의 경우 2019년 11월 중순경 교육과정 위원회가 기초, 임상, 역량중심 총 3가지 방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위원 2인 이상과 학생회장, 교육위원장이 포함된 학생 그룹과 기초, 임상 교수님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5. 가천대학교의 경우, 교육인증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환자군’에 대한 실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필수 환자군은 각 과 교수님들과 서로 정보 공유를 하여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내에 확보되지 않는 환자군의 경우 그동안은 국립재활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나 자생한방병원같은 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임상실습기간 중에 참관을 가서 같이 실습을 했었습니다. 올해 역시, 타 병원 혹은 로컬에 있는 한의원에 참관을 하는 방식으로 환자군을 확보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국립재활원 및 타 병원, 길병원, 한의원 모두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술기교육을 강화하고, 타 의료기관 참관을 방법으로 삼아서, 병원 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6. 현재 임상실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생각되는데,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임상실습은 임상교육방법론을 활용한 것이 많습니다. 현재 가천대학교는 대표적인 임상실습교육방식인 OSCE, CPX, PBL 그리고 외래 참관으로 임상실습을 진행 중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은 난관에 부딪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과 3학년 학생들께서 협조를 잘해주시어, 처음에는 실습에 대한 개요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방역을 철저히 하여 OSCE(임상술기실습)를 하여 의학적 검사 및 침 치료 방법 등을 학생 간에 서로 실습했습니다. 또 PBL이라고 해서, 어떤 환자가 왔는데 한의학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모여서 아는 것들을 브레인스토밍하면서 공부하는 방식과,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문진하고 치료계획을 설명하는 지 실습해보는 CPX를 활용한 모의임상실습위주로 임상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교내에서는 위와 같이 임상역량적 요소를 학습하게 되며, 교내에서 부족한 부분은 타 한방병원 등, 외부의료기관에 참관하는 수업을 통해 실제적인 경험을 합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임상실습을 진행했습니다.

7. KAS2021에는 외부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다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앞서 말씀해주신 가천대학교의 외부의료기관 임상실습에 대해 더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전에는 길병원에서 2주, 자생한방병원 등의 외부의료기관에서 1-2주와 같이 계획을 편성하여 이를 상황에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참관의 경우 현재 1주로 기간을 축소하여 최대한 집중적으로 단기간 내에 외부임상실습을 하는 방향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외부의료기관은 아무래도 각 기관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짧고 집중적으로 실습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기 실습 또한, 학기 중 임상 실습이 월, 화, 수로 몰아 있기 때문에 1주라고 하더라도 5일 모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방학에 추가적으로 선택 실습을 진행하는 방향 또한 고려중에 있습니다.

8.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나요?

가천대학교가 인천광역시와의 협력관계가 옛날부터 형성되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초기에는 인천지역과 연계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진 못했습니다. 길한방병원이 가천대한방병원으로서 동인천에 자리를 잡은 것이 2015년입니다. 가천대학교는 현재 한방병원은 인천, 학교는 성남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병원 교수님 중에서 여전히 경기도 한의사회 소속인 분들도 계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도부터는 거의 모든 교수님들께서 인천 한의사회 소속으로 소속을 개편하셨고, 현재는 동인천길병원이 위치한 인천광역시 중구와 접촉을 하여, 지역 활성화에 대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 사회에 대한 의료보장협의체나 작은 병원 규모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에서 요청이 오는 부분, 한방난임사업과 같은 부분을 진행할 때에는 교수님들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참여하셔서 자문 및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병원 교수님들께서는 보험공단, 의료보장협의체와 소통하며 인천광역시 보건소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천대학교가 길병원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천광역시 지역사회 내에서 가천대학교가 실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사람들이 가천대학교를 잘 모르고 특히 한방병원이 있는지는 더더욱 모릅니다. 이렇듯 이미지가 확고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현재 동인천에 있는 동안은 우리의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목표는 인천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병원의 자리매김을 잘 해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9. 교육수련병원을 보유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의과/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 수련비율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의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음, 저희의 경우 적정하지 않습니다.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교병원으로서, 학생들의 교육, 수련을 위한 적절한 환경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그렇지 못하여 이 부분도 어디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는 한의과대학과 대학본부 및 재단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대화를 해야 하는 부분이나 현재 수련 교육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 것이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0. 점점 많은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근래 수련의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가천대 졸업생들이 병원보다는 로컬로 나가는 비율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모교 병원이 아니더라도 타 학교 병원에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한방병원에 지원하여 가는 비율도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것은 4년이라는 시간을 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한의원을 개원할 수도 있는 4년이라는 기간을 보류하는 것이기에, 수련 및 전문의에 지원하는 학생들께서는 제도권 내에서 소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의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학술 및 사회적 교류나 논문을 쓰는 공부, 연구에 대한 부분이 주로 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므로, 그런 부분에 공들여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1. 현재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의 선상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해주실 따뜻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현재 본과 3, 4학년에 거의 대부분의 임상 교육이 몰려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초과정을 학습하는 예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본과 3, 4학년을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의대에 입학하여 한의사 면허만을 목적으로 하여 국시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학업에 임하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한의과대학에서 재학하는 시절이 한의사로 성장할 자신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의 시간 동안 기초 교육을 받습니다. 이 기초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임상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이므로, 앞서 말씀드렸듯 기초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기초와 임상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계기를 많이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에서 중요한 것이 연구든 임상이든 그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한의대 병원, 로컬 한의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의료계 내에서 한의사이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더 넓은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의계 내에서 고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러 이벤트를 참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 분들께서 스스로 한의사이기 이전에 의료인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인이라는 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한의사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서 경험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시절동안 스스로 임상으로 나아갈 것인지, 연구로 나아갈 것인지 등을 고민하며 어떤 한의사의 삶을 살 것인지 계획해보세요. 또 글로벌시대에 발 맞춰 틈틈이 외국어 공부도 충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의학을 당연히 사랑해야 하고 한의학이 자신의 정체성이어야 하기는 하지만 사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또 지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소양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한의대 내에서 공부도 충실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대는,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하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그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의계의 문제 중 하나가 사회가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존의 것만 고수하는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에서 한의계가 별개로 고립된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제서야 다시 사회와 섞이려고 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서로 맞지 않아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급속도로 다변화되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서, 후에 한의사로서 미래 사회와 한의계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맞추기 위한 요구사항들과 필요사항들을 학교에 잘 요구하고 조율하면서 장기적으로 한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생이 서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경희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일반화학및실습	3	2	2	
		한문 I	2	4	0	
		한의학입문 I	2	4	0	신설
		의학용어 I	1	2	0	신설
	2	일반생물및실습	3	2	2	
		한문 II	2	4	0	
		한의학입문 II	2	4	0	신설
		의학용어 II	1	2	0	신설
예과 2학년	1	중국어회화	1	2	0	
		의학한문 I	1.5	3	0	
		의사학 I	1.5	3	0	
		생리학 I	4	4	0	
		생리학실습 I	0.5	0	2	
		생화학및실습 I	3.5	3	2	
		발생학 I	1	2	0	
		의학기공학 I	1	2	0	
		본초학총론 I	1	2	0	
	2	의학통계학	1	2	0	
		의학한문 II	1.5	3	0	
		의사학 II	1.5	3	0	
		생리학 II	4	4	0	
		생리학실습 II	0.5	0	2	
		생화학및실습 II	3.5	3	2	
		발생학 II	1	2	0	
		의학기공학 II	1	2	0	
		본초학총론 II	1	2	0	
본과 1학년	1	해부학 I	4	4	0	
		해부학실습 I	0.5	0	2	
		병리학 I	4	4	0	
		병리학실습 I	0.5	0	2	
		양생학 I	2	2	0	
		양생학실습 I	0.5	0	2	
		양방생리학 I	2	2	0	
		본초학 I	4	4	0	
		본초학실습 I	0.5	0	2	
		원전 I	3	6	0	
	2	해부학 II	4	4	0	
		해부학실습 II	0.5	0	2	
		병리학 II	4	4	0	
		병리학실습 II	0.5	0	2	
		양생학 II	2	2	0	
		양생학실습 II	0.5	0	2	
		양방생리학 II	2	2	0	

		본초학Ⅱ	4	4	0	
		본초학실습Ⅱ	0.5	0	2	
		원전Ⅱ	3	6	0	
		조직학	2	2	0	
본과 2학년	1	경혈학Ⅰ	2	2	0	
		경혈학실습Ⅰ	1	0	4	
		약리학Ⅰ	2	2	0	
		약리학실습Ⅰ	0.5	0	2	
		양방병리학Ⅰ	2	2	0	
		처방제형학Ⅰ	3	3	0	
		처방제형학실습Ⅰ	0.5	0	2	
		예방의학및공중보건학Ⅰ	2	2	0	
		상한론Ⅰ	1	2	0	
		각가학설Ⅰ	1	2	0	
		의학윤리	1	2	0	
		미생물학	1	2	0	
		보건법규	1	2	0	
		면역학	1	2	0	
		기초의학실습	0.5	0	2	
	2	경혈학Ⅱ	2	2	0	
		경혈학실습Ⅱ	1	0	4	
		약리학Ⅱ	2	2	0	
		약리학실습Ⅱ	0.5	0	2	
		양방병리학Ⅱ	2	2	0	
		처방제형학Ⅱ	3	3	0	
		처방제형학실습Ⅱ	0.5	0	2	
		예방의학및공중보건학Ⅱ	2	2	0	
		상한론Ⅱ	1	2	0	
		각가학설Ⅱ	1	2	0	
		양방진단학	2	4	0	
		법의학	1	2	0	
		온병학	1	2	0	
		사상의학Ⅰ	1	2	0	
		종양학	1	2	0	
본과 3학년	1	간계내과학Ⅰ(3-1)	1	2	0	
		심계내과학Ⅰ(3-1)	1	2	0	
		비계내과학Ⅰ(3-1)	1	2	0	
		폐계내과학Ⅰ(3-1)	1	2	0	
		신계내과학Ⅰ(3-1)	1	2	0	
		침구학Ⅰ(3-1)	1.5	3	0	
		부인과학Ⅰ(3-1)	1.5	3	0	
		소아과학Ⅰ(3-1)	1	2	0	
		피부외과학Ⅰ(3-1)	1	2	0	
		안이비인후과학Ⅰ(3-1)	1	2	0	
		신경정신과학Ⅰ(3-1)	1	2	0	
		재활의학과학Ⅰ(3-1)	1	2	0	
		추나학Ⅰ	1	2	0	
		영상의학Ⅰ	1	2	0	
		진단검사의학Ⅰ(3-1)	1	2	0	
		응급의학Ⅰ(3-1)	1	2	0	
		진단학Ⅰ(3-1)	1	2	0	
		사상의학Ⅱ	0.5	1	0	

	2	간계내과학Ⅱ(3-2)	1	2	0	
		심계내과학Ⅱ(3-2)	1	2	0	
		비계내과학Ⅱ(3-2)	1	2	0	
		폐계내과학Ⅱ(3-2)	1	2	0	
		신계내과학Ⅱ(3-2)	1	2	0	
		침구학Ⅱ(3-2)	1.5	3	0	
		부인과학Ⅱ(3-2)	1.5	3	0	
		소아과학Ⅱ(3-2)	1	2	0	
		피부외과학Ⅱ(3-2)	1	2	0	
		안이비인후과학Ⅱ(3-2)	1	2	0	
		신경정신과학Ⅱ(3-2)	1	2	0	
		재활의학과학Ⅱ(3-2)	1	2	0	
		추나학및실습	1	2	0	
		영상의학Ⅱ	1	2	0	
		영상의학실습	0.5	0	2	
		진단검사의학Ⅱ(3-2)	1	2	0	
		응급의학Ⅱ(3-2)	1	2	0	
		진단학Ⅱ(3-2)	1	2	0	
		사상의학Ⅲ	0.5	1	0	
본과 4학년	1	간계내과학Ⅰ(4-1)	1.5	0	3	
		심계내과학Ⅰ(4-1)	1.5	0	3	
		비계내과학Ⅰ(4-1)	1.5	0	3	
		폐계내과학Ⅰ(4-1)	1.5	0	3	
		신계내과학Ⅰ(4-1)	1.5	0	3	
		침구학Ⅰ(4-1)	1.5	0	3	
		부인과학Ⅰ(4-1)	1.5	0	3	
		소아과학Ⅰ(4-1)	1.5	0	3	
		피부외과학Ⅰ(4-1)	1.5	0	3	
		안이비인후과학Ⅰ(4-1)	1.5	0	3	
		신경정신과학Ⅰ(4-1)	1.5	0	3	
		재활의학과학Ⅰ(4-1)	1.5	0	3	
		사상의학Ⅰ(4-1)	1.5	0	3	
		진단학Ⅰ(4-1)	1.5	0	3	
		응급의학Ⅰ(4-1)	1	0	2	
	2	간계내과학Ⅱ(4-2)	1.5	0	3	
		심계내과학Ⅱ(4-2)	1.5	0	3	
		비계내과학Ⅱ(4-2)	1.5	0	3	
		폐계내과학Ⅱ(4-2)	1.5	0	3	
		신계내과학Ⅱ(4-2)	1.5	0	3	
		침구학Ⅱ(4-2)	1.5	0	3	
		부인과학Ⅱ(4-2)	1.5	0	3	
		소아과학Ⅱ(4-2)	1.5	0	3	
		피부외과학Ⅱ(4-2)	1.5	0	3	
		안이비인후과학Ⅱ(4-2)	1.5	0	3	
		신경정신과학Ⅱ(4-2)	1.5	0	3	
		재활의학과학Ⅱ(4-2)	1.5	0	3	
		사상의학Ⅱ(4-2)	1.5	0	3	
		진단학Ⅱ(4-2)	1.5	0	3	
		응급의학Ⅱ(4-2)	1	0	2	
		졸업논문	-	-	-	졸업필수요건

② 전공선택과목

ㄱ. 전공선택 핵심형 과목

대상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실기 (시수)	비고
한 의과대학 (예과/본과 공통)	1~2	한 의정보학	1	2	0	신설
		한 의커뮤니케이션	1	2	0	신설
한 의예과		한 의학사유방법론	1	2	0	신설
		과학의인식과역사	1	2	0	신설
한 의학과		보완통합의학	1	2	0	신설

ㄴ. 전공선택 자유형 과목

대상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실기(시수)	비고
한 의과대학	1~2	고 의서독법	1	2	0	신설
		근거중심의한 의학개론	1	2	0	신설
		난 경(難經)의 변증(辨證)과맥진(脈診)	1	2	0	신설
		동의보감	1	2	0	신설
		분자생물학	1	2	0	신설
		의학연구입문	1	2	0	신설
		의학유전학	1	2	0	신설
		의학입문	1	2	0	신설
한 의학과	1	공간척추도인안교학1	1	1	1	
		도침요법1	1	1	1	
		독립심화학습1	3	3	0	신설
	2	공간척추도인안교학2	1	1	1	
		도침요법2	1	1	1	
		독립심화학습2	3	3	0	신설
	1~2	동씨기혈론	1	2	0	
		동의수세보원감오구본	1	2	0	
		면역약침학	1	2	0	
		명상과실습	1	1	1	
		빈호맥진과8체질맥진	1	2	0	
		사상의학임상특강	1	2	0	
		사암침법	1	2	0	
		의료경영의이해	1	2	0	
		임상특강	1	2	0	
		한방음악치료학	1	2	0	
		한방종양생물학	1	2	0	
		한방피부미용학	1	2	0	
		현대임상온병학	1	2	0	

* 한 의과대학 전체 개설과목의 경우, 예과/본과 학생 모두 수강 가능

* 전공선택과목은 전과목 P/N 방식으로 성적 산출, N 취득 시에도 유급적용 하지 않음.

* 졸업하는 학기에는 졸업논문과정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

3. 대구한의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사서강독(1)	2	2	0	
		자기이해와 진로설계	1	1	0	
		한의학개론(1)	2	2	0	
		일반화학	2	2	0	
		일반생물학(1)	2	2	0	
		의학한문(1)	2	2	0	
	2	사서강독(2)	2	2	0	
		의학통계론	2	2	0	
		한의학개론(2)	2	2	0	
		의학영어	2	2	0	
		일반생물학(2)	2	2	0	
		의학한문(2)	2	2	0	
		생화학(1)	2	2	0	
		동양철학	2	2	0	
예과 2학년	1	발생학	2	2	0	
		생리학및실습(1)	4	5	2	
		생화학(2)	2	2	0	
		의사학(1)	2	2	0	
		원전학(1)	4	3	2	
		한의정보학	2	2	0	
		의료윤리학	2	2	0	
	2	생리학및실습(2)	4	5	2	
		양방생리학및실습(1)	2	1	2	
		의사학(2)	2	2	0	
		조직학및실습(1)	1	1	1	
		해부학및실습(1)	4	3	4	
		약용식물학	2	2	0	
		원전학(2)	4	3	2	
본과 1학년	1	본초학실습(1)	1	0	2	
		본초학(1)	3	5	0	
		한약포제학	2	2	0	
		미생물학및실습	1	1	1	
		조직학및실습(2)	1	1	1	
		양방생리학및실습(2)	2	1	2	
		기공학실습(1)	1	0	2	
		해부학및실습(2)	3	2	5	
		생리학및실습(3)	4	5	2	
		의학논문강독(1)	1	0	2	
	2	경혈학	2	2	0	
		기공학실습(2)	1	0	2	
		본초학실습(2)	1	0	2	
		본초학(2)	5	8	0	
		의학논문강독(2)	1	0	2	
		면역학및실습	1	1	1	
		약리학및실습(1)	2	2	2	

		병리학및실습(1)	4	5	2	
		양방병리학및실습(1)	2	2	2	
본과 2학년	1	방제학및실습(1)	3	3	2	
		경혈학및실습(1)	3	2	2	
		양방병리학및실습(2)	2	2	2	
		양방진단학(1)	1	2	0	
		진단학및실습(1)	2	2	1	
		본초학(3)	1	2	0	
		본초학실습(3)	1	0	2	
		병리학및실습(2)	4	5	2	
		약리학및실습(2)	2	2	2	
		상한론(1)	3	3	0	
	2	양방진단학(2)	1	2	0	
		상한론(2)	3	3	0	
		진단학및실습(2)	2	2	2	
		방제학및실습(2)	3	3	2	
		온병학	2	2	0	
		임상병리학	2	2	1	
		제가의론	2	2	0	
		경혈학및실습(2)	3	2	2	
본과 3학년	1	피부외과학(1)	1	2	0	
		침구의학(1)	3	6	0	
		한방내과학(1)	5	10	0	
		신경정신과학(1)	1	2	0	
		소아과학(1)	1	2	0	
		사상의학(1)	2	4	0	
		부인과학(1)	2	4	0	
		안이비인후과학(1)	2	3	0	
		방사선학(1)	1	2	0	
		재활의학(1)	1	2	0	
		신침요법및실습	1	1	1	
	2	피부외과학(2)	1	2	0	
		침구의학(2)	3	6	0	
		한방내과학(2)	5	10	0	
		신경정신과학(2)	1	2	0	
		소아과학(2)	1	2	0	
		사상의학(2)	2	4	0	
		부인과학(2)	2	4	0	
		안이비인후과학(2)	2	3	0	
		방사선학(2)	1	2	0	
		재활의학(2)	1	2	0	
		추나학	1	2	0	
		약침학	1	1	1	
본과 4학년	1	추나학및실습	1	1	1	
		한방내과학실습(1)	5	0	10	
		사상의학실습(1)	1	0	2	
		침구의학실습(1)	3	0	6	
		재활의학실습(1)	1	0	2	
		신경정신과학실습(1)	1	0	2	
		피부외과학실습(1)	1	0	2	
		안이비인후과학실습(1)	1	0	2	
		부인과학실습(1)	1	0	2	

		소아과학실습(1)	1	0	2	
		예방의학(1)	2	2	1	
		지역사회임상실습(1)	2	0	4	
		보건법규(1)	1	2	0	
		임상大家특강	1	2	0	
2		임상종양학	1	0	2	
		한방내과학실습(2)	5	0	10	
		사상의학실습(2)	1	0	2	
		침구의학실습(2)	2	0	4	
		재활의학실습(2)	1	0	2	
		신경정신과학실습(2)	1	0	2	
		피부외과학실습(2)	1	0	2	
		안이비인후과학실습(2)	1	0	2	
		부인과학실습(2)	1	0	2	
		소아과학실습(2)	1	0	2	
		예방의학(2)	2	2	1	
		지역사회임상실습(2)	2	0	4	
		보건법규(2)	1	2	0	
		병원관리학	1	2	0	

2) 병원 방문 면담록

- 1) 방문장소 : 대구한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 2) 방문일자 : 2020년 9월 4일
- 3) 방문자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안병웅(가천대), 교육국장 한승훈(동국대), 정책국장 윤성훈(대구한의대)
 - 교육집행위원 : 최호진(가천대)
- 4) 면담교수님 : 최성훈 교수님(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과장), 이상남 교수님(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장)
황보민 교수님(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

1.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만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병원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는 한방병원이 대구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구광역시 내에 약령시가 있기 때문에 한방관련 사업을 할 때, 저희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음으로 **양/한방 협진 시범사업 대상으로, 양/한방 협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진 사업을 시행하면서, 병원 구조에 직접적으로 변화된 사항은 없지만 지역 환자한테 이익이 되도록 공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환자군의 특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안면마비를 포함한 척추관절센터, 중풍, 알러지, 암센터, 내과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딱히 어디가 더 중점을 두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 환자군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안면마비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 내 안면마비 환자 중, 많은 분들께서 대구한의대 병원을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과 교육과정에서의 강점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먼저, 매년 타 학교에 비해 학생 수 대비 많은 카테바가 확보되고 있기에 해부학교실에서 실습을 진행할 때 실습여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의과대학들 중 유일하게 기공학교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공학은 인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기(氣)를 더욱 심층적으로 다루는 과목으로, 대구한의대의 교육과정을 더욱 특색 있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2.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병원에서도 현재 양/한방 협진을 진행하고 있나요? 협진을 진행 중 이시라면 어떤 형태로 진행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저희 학교의 강점을 소개드리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양/한방 협진 현황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한방진료로 침을 맞거나 조치를 하고, 양방에서 물리치료로 서포트하는 형태의 협진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포항(대구한의대부속포항한방병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부분 다 한방에서 침이나 부항 등의 치료를 받은 후에 물리치료를 양방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한방을 의료보험으로 하고 양방은 일반의료로 치료를 받았었는데, 협진 사업을 하고 나서는, 양/한방 진료 모두 보험이 되어 환자입장에서는 의료비가 굉장히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 실제 치료에 있어서는 그 전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침, 추나와 같은 한방치료와 물리치료와 같은 양방치료가 합해진 입원은 조금 다릅니다. 양방으로 랩이나 오더 등을 내리고 한방 선생님들이 침이나 한약 등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암센터에서는 암환자들의 pain control같은 경우에 들어갑니다. 주로 치료는 한방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암환자 특성상 Big3에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양방에서 메인을 치료하고 terminal 같은 분들은 진통제만 투여하기에는 삶의 질이 떨어지기에 편안하게 진정시켜드리기 위하여 한방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도와주는 효과도 충분히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대구한의대학교의 경우 2024년에 KAS2021 인증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 KAS2021 평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면담에서는 아래의 소질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KAS2021에서 구체적인 것은 다른 단위, 국내외 의과대학,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의학을 교육하는 기관을 참고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종합평가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에만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된다면 내년 2학기부터는 어느 정도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1) 교과과정의 수평통합, 수직통합적 요소가 현행 대구한의대의 교육과정 내에 어떻게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구팀을 꾸려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수평/수직적 통합이 다 되어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수직적 통합의 경우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여러 교과목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수평적 통합의 경우 현재 5개(간계, 심계, 비계, 폐계, 신계)내과를 내과학으로 형식적 통합을 이뤄 둔 상황이지만, 효용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통합과정에 대해 여러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산재해있는 상황입니다.

2) P2.5.1.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중 첫 번째 항목(임상의학 전체 수업시간의 30% 이상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다.)에 대해 현재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는, Flip-learning, PBL, 하브루타와 같은 교수학습법을 활용하고 있는 교과목이 일부 있습니다. 수업 중 학습 중인 내용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답을 도출해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도록 하는 수업방식을 적용해보는 등, 이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P2.5.3.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중 ‘임상실습을 50주, 1500시간 이상 운영한다.’에 대해 현재 대구한의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습을 50주로 맞추는 것에는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지만, 1500시간 실습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항목에 대한 대한 인정 기준이 따로 있는데, 다음 달(2020년 10월) 중에 한평원에서 자료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평원에서는 임상실습에 대한 정의를, 환자와 관련된, 대면 실습행위로 정의하며 기초과목에서 진행되는 것은 임상 실습이 아닌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주로 본3, 4학년에서 이뤄지는 실습을 임상실습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 교수의 입장으로선, 본과 3학년 1학기, 2학기부터 해서 학생들의 방학이 몇 개 사라지는 상황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오히려 궁금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임상실습을 50주 진행하려면, 기존의 학기제가 아닌 쿼터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부산대가 실시하고 있으니, 부산대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4) A2.6.2.의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지침 중, ‘선택과목을 전체 강의 시간의 10% 이상 운영한다.’에 대해 현재 대구한의대학교의 전공선택과목들에 대해 소개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저희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예과에 선택과목이 원래 2개 정도 있었으나 현재는 없고, 본과에도 선택 학습의 요소는 있습니다. 본과의 경우, 본과 1, 2학년 에는 선택과목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본과 3학년은 임상과목 중에 침구학 중 테이핑과 같은 일부 술기 같은 것들을 선택하여 실습할 수 있습니다.

4. 대구한의대학교의 경우, 교육인증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환자군’에 대한 실습을 위해 OSCE/CPX 등의 모의실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중이신가요?

우선OSCE의 경우, 한평원에서 OSCE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확정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저희의 경우 부산대와 협약을 맺어 부산대의 OSCE를 이용해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내엔 부산대 술기센터와 유사하지만 어느 정도의 특색을 살린 센터가 한의학관 3, 4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략 30가지 이상의 OSCE 항목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도에 대해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습 시기에 평가를 진행하는데, 준수하게 교육중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OSCE 술기센터 내에 설비들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CPX 모듈은 없으며, CPX를 각 교실과 협의를 하여, 모의 환자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본래 더 진행이 되어있어야 했는데 코로나 여파로 중단이 되어 확정된 부분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향후 이 상황이 지속 되면, 단독으로 따로 환자를 모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독으로 환자를 모집하게 되면 비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CPX 10case를 기준으로 1case당 20만원여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비용문제 때문에 현재 영남 권역에서 타 한의과대학과 함께 모듈을 구축하여, CPX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후년까지 CPX 모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5. 타 대학의 경우, 외부의료기관과 협력을 하여 실습을 진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혹시 대구한의대학교에서도 외부의료기관 실습을 진행 중이신가요?

대구한의대는 대구/경북지역의 대외 의료기관을 통하여 6주간 별도로 자율 실습을 진행합니다. 작년엔 자율적으로 3주 그리고 학교차원에서 연계해 3주를 진행했고, 올해엔 자율적으로 6주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개인 자율실습은, 학생개인이 사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연락이 닿은 의료기관을 가서 실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원 한의사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어, 때때로 지역한의원 실습은 포기하고 다른 자율 실습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6.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나요?

한방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방 관련해 대구광역시에 약령시가 있어서, 한방 사업 파트너로 인근의 학교인 저희 대구한의대를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또한 저희 대구한의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과 함께 해서 양/한방 협진 연구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런 사업들은 모든 학교에 다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자체가 약령시장이나 한방에 관한 관심이 많이 있는 특징이 있어서 예산 등에 있어서 대구광역시가 다른 곳들보다 나을 것입니다. 농협행복인버스와 같은 지역공헌 사업들이 과거처럼 예산이 주어졌을 때, 저희학교를 지정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익이 관여되는 사업인 경우, 저희만 항상 지정을 하게 되면 특혜를 주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형식으로 되어, 꼭 대구한의대가 주도적으로 한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약령시에서 주관하는 체험센터에 주관하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계속 진행을 하며 봉사활동을 비롯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지자체의 그때그때의 수요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교육수련병원을 보유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의과/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 수련비율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대구한의대학교의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련의 지원 비율 데이터에 대한 것은 저희 졸업준비위원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모든 한의과대학이 그렇듯, 자교 대학병원 내에서 모든 학생이 수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8. 점점 많은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음, 인기과목은 계속 변화합니다. 따라서 개인 취향에 맞는 과를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한의사 직군이 미래의 의료체계에 자리 잡기 위해서, 일반의 중심의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지,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지에 대해 교수님의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의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국 한의학의 니즈는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점차적으로 한의계도 전문의 중심 시스템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한의계 전체가 갑자기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의학에서 한의학이 어쩔 수 없이 주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료수가에 있어서 전문의가 크게 이점을 갖는 부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선 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에 간극이 별로 없습니다.(전문성의 측면이 아닌, 한의사로서 차후 의료행위를 할 때 전문의/일반의 간에 간극이 별로 없음을 의미함.) 현재 그래도 전문의선생님들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과 같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긴 하다면,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큰 지향점의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4. 대전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경전강독1	1	2	0	
		생물학	1	2	0	
		일반한문1	1	2	0	
		한의학개론1	1	2	0	
		화학	1	2	0	
		기초의학입문1	1	2	0	
		천연물의약입문1	1	2	0	
	2	일반한문2	1	2	0	
		한의학개론2	1	2	0	
		양생학1	1	2	0	
		경전강독2	1	2	0	
		미생물학	1	2	0	
		기초의학입문2	1	2	0	
		천연물의약입문2	1	2	0	
예과 2학년	1	생화학1	1	2	0	
		생리학1	2	3	0	
		양생학2	1	2	0	
		의학사1	1	2	0	
		조직학1	1	2	0	
		원전1	1	2	0	
		한의학한문1	1	2	0	
		양방생리학1	1	2	0	
		양방생리학실습1	1	0	2	
		해부학1	2	4	0	
		해부학실습1	1	0	2	
		생리학실습1	1	0	2	
		어드벤처 디자인1	1	2	0	
	2	어드벤처 디자인2	1	2	0	
		생화학2	1	2	0	
		의학통계학	1	2	0	
		생리학2	2	3	0	
		조직학2	1	2	0	
		면역학	1	2	0	
		한의학한문2	1	2	0	
		의학사2	1	2	0	
		원전2	1	2	0	
		양방생리학2	1	2	0	
		양방생리학실습2	1	0	2	
		해부학2	2	4	0	
		해부학실습2	1	0	2	
		생리학실습2	1	0	2	
		의료윤리학	1	2	0	
1	1	약리학1	1	2	0	

본과 1학년		원전3	1	2	0	
		경락경혈학1	2	3	0	
		병리학1	2	3	0	
		병리학실습1	1	0	2	
		본초학2	3	5	0	
		본초학실습1	1	0	3	
		양방병리학1	1	2	0	
		양방병리학실습1	1	0	2	
		팀프로젝트(캡스톤)1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3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5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7	1	2	0	
	2	경락경혈학2	2	3	0	
		경락경혈학실습1	1	0	3	
		약리학2	1	2	0	
		원전4	1	2	0	
		양방병리학2	1	2	0	
		양방병리학실습2	1	0	2	
		본초학3	3	5	0	
		본초학실습2	1	0	3	
		병리학2	2	3	0	
		병리학실습2	1	0	2	
		경락경혈학실습2	1	0	3	
		온병학1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2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4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6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8	1	2	0	
본과 2학년	1	상한론 I	2	3	0	
		예방의학 I	2	3	0	
		예방의학실습 I	1	0	2	
		방제학 I	2	3	0	
		방제학실습1	1	0	2	
		진단학 I	2	3	0	
		진단학실습1	1	0	2	
		팀프로젝트(캡스톤)1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3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5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7	1	2	0	
	2	상한론2	1	2	0	
		부인과학1	1	2	0	
		사상의학1	1	1	0	
		소아과학1	1	2	0	
		신경정신과학1	1	2	0	
		외관과학1	1	2	0	
		침구의학1	1	2	0	
		한방재활의학과학1	1	2	0	
		진단학Ⅱ	1	2	0	
		진단학실습2	1	0	2	
		내과총론	2	3	0	
		온병학2	1	2	0	

		예방의학II	1	2	0	
		예방의학실습II	1	0	2	
		방제학II	1	2	0	
		방제학실습2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2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4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6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8	1	2	0	
본과 3학년	1	간계내과학2	1	2	0	
		비계내과학2	1	2	0	
		사상의학2	1	2	0	
		소아과학2	1	2	0	
		신경정신과학2	1	2	0	
		신계내과학2	1	2	0	
		심계내과학2	1	2	0	
		영상의학1	1	2	0	
		임상병리학1	1	1	0	
		폐계내과학2	1	2	0	
		한방재활의학과학2	1	2	0	
		부인과학2	1	2	0	
		외관과학2	1	2	0	
		진단의학1	1	2	0	
		침구의학2	1	2	0	
		추나의학 및 실습1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1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3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5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7	1	2	0	
	2	간계내과학3	1	2	0	
		비계내과학3	1	2	0	
		사상의학3	1	2	0	
		소아과학3	1	2	0	
		신경정신과학3	1	2	0	
		신계내과학3	1	2	0	
		심계내과학3	1	2	0	
		임상병리학2	1	1	0	
		진단의학2	1	2	0	
		폐계내과학3	1	2	0	
		한방재활의학과학3	1	2	0	
		부인과학3	1	2	0	
		영상의학2	1	2	0	
		외관과학3	1	2	0	
		침구의학3	1	2	0	
		추나의학 및 실습2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2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4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6	1	2	0	
		팀프로젝트(캡스톤)8	1	2	0	
본과 4학년	1	부인과학실습 1	1	0	2	
		소아과학실습 1	1	0	2	
		신경정신과학실습 1	1	0	2	
		신계내과학실습 1	2	0	4	

		심계내과학실습 1	1	0	2	
		외관과학실습 1	1	0	2	
		의료보험및병원관리학	1	1	0	
		폐계내과학실습 1	1	0	2	
		간계내과학실습 1	2	0	4	
		보건의료법규 1	1	2	0	
		비계내과학실습 1	2	0	4	
		사상의학실습 1	2	0	4	
		침구의학실습 1	2	0	4	
		한방재활의학과학실습 1	2	0	4	
	2	간계내과학실습 2	2	0	4	
		보건의료법규 2	1	2	0	
		비계내과학실습 2	1	0	2	
		사상의학실습 2	1	0	2	
		침구의학실습 2	1	0	2	
		한방재활의학과학실습 2	1	0	2	
		부인과학실습 2	2	0	4	
		소아과학실습 2	2	0	4	
		신경정신과학실습 2(	2	0	4	
		신계내과학실습 2	2	0	4	
		심계내과학실습 2	2	0	4	
		외관과학실습 2	2	0	4	
		폐계내과학실습 2	2	0	4	

* 팀프로젝트(캡스톤)은 본과 1학년에 8개 중 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3년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전공선택과목

대상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실기(시수)	비고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1	인문한의학	1	2	0	
		동의보감1	1	2	0	
		의철학	1	2	0	
		한의연구설계론	1	2	0	
	2	명의이론	1	2	0	
		동의보감2	1	2	0	
		한문성독	1	2	0	
	1~2	근거중심의학	1	2	0	
본과 3학년	1	금궤요략 I	1	2	0	
		변증론치연구1	1	2	0	
	2	금궤요략 II	1	2	0	
		변증론치연구2	1	2	0	
	1~2	특수침법	1	2	0	
		한의통합중양학	1	2	0	

2) 병원 방문 면담록

- 1) 방문장소 :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 2) 방문일자 : 2020년 8월 10일
- 3) 방문자 :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안병웅(가천대), 교육국장 한승훈(동국대), 기획국장 오형래(대전대)
 - 교육집행위원 : 김태준(대전대), 윤지환(가천대), 최호진(가천대), 허운(원광대)
- 3) 면담교수님 : 유정은 교수님(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대전한방병원 교육전담교수)

1.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만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대는 의학 교육실이 따로 있는 곳이 많은 반면, 한의대에는 교육 자체에 조인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전대는 작년에 교육실을 신설하여 피드백이 가능한 교육과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엔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인력개발원 겸직으로 한의과 전문으로 새로 오시기도 하였고요. 다시 말해, 대전대의 첫 번째 장점은 조직적인 교육 관련 일을 상의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저희는 임상역량 자료집을 작년도에 다 정리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점차 역량 위주로 변화하고 있는 한의학 교육의 트렌드에 발맞추어, 전문, 인성, 봉사 역량 세 가지 중, 자기 주도, 연구 능력, 윤리 의식, 지역사회 공동의식 등의 세부역량들을 6년에 걸쳐 각 교과목에 매칭하여 보다 트렌드에 맞는 교육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수화를 비롯한 인문 교양 과목들을 응급의학 등의 과목과 콜라보하는 과정을 만든 것이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대는 이렇게 최근 2년간 교육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또, 대전대는 2주기 인증평가 및 KAS2021에 맞춰 임상교육부분도 많은 개편을 하였습니다. 의학 임상교육에서 중요한 요소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르고자 하는 역량에 맞추어 교육 과정이 바뀌었는가?’ 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희학과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교육체계를 갖추기 위해 다양한 학습법, 임상 수행 능력 평가, 지침서, 술기책 등을 활용하며, PBL, OSCE, CPX와 같은 임상교육방식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임상실습지침서의 각 교과목 별 평가 내용이나, 구체적 학습 목표를 2주기 인증평가와 KAS2021에 맞추어 모두 업데이트했습니다. CPX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1~2년 쉼 적은 있지만, 2017년부터는 쭉 이어오면서 작년까지는 연 1회, 올해부터는 연 2회로 상하반기 나눠 계획하고 있으며, 6월 달에 한 번 시험을 봤었습니다. CPX 시험 평가는 ‘만족도 설문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의환자배우와 평가자가 함께 피드백 하는 방식입니다. 평가에 대한 피드백은 타이핑하여 학생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 시험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임상 실습 책임 교수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교수님들이 모여서 정규 미팅을 가져, 교육적인 내용들을 주로 논의하며,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바뀌는 실습 내용들도 상의했습니다. 또한, 평가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교수님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아직까진 저희 임상술기센터에 비품이 부족합니다. 현재 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골반 초음파와 같은 것도 모형으로 실습할 수가 있는데, 저희 대전대는 아직 이런 것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본부를 통해 예산안을 확보하여, 집기 비품비로 실습 모형 등을 충분히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2. 대전대학교 한방병원들에서도 현재 양/한방 협진을 진행하고 있나요? 협진을 진행 중이시라면 어떤 형태로 진행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방문하신 대전한방병원에는 의과 선생님 두 분께서 병원 내에 계셔서 저희가 따로 의뢰할 케이스가 있다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루트의 협진은 아니지만 저희 병원 내 각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연이 있는 외부 병원 선생님이 있으신 경우엔 외부 병원이랑도 과별로 나누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3. 대전대학교의 경우 2020년에 2주기 인증평가에 들어가는데, 대학에서는 다가오는 2주기 인증평가 또는 KAS2021에 대비해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 발전계획서의 작성 팀 멤버였는데, 저희 대전대는 2주기 인증평가 뿐만 아니라, KAS2021의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올렸습니다. 이제는 총장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저희 학과에서는, 인증 평가 관련한 내용을 올려놓고, 발전된 교육체계를 위한 계획안이 승인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단과 학교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카스에서 요구하는 교원 같은 것도 학교 측에 요청해서 카스 요건에 적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교육인증평가를 받을 시, 그 준비과정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개편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KAS2021 인증평가편람에는 학교의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와 학생들 참여가 필요하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발전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열람하기도 했었습니다. 협의체 구성 과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학생 대표, 대전시 한의사 협회장님과도 연락을 했었고, 작년 졸업생들에게 교육과정 관련 설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내용에는 ‘기초와 임상과정의 연계성이 어떤가?’, ‘교수법은 적절한가?’, ‘성적평가는 공정했는가?’ 등이 있었는데, 설문 결과는 발전계획서의 작성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데이터로 활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목소리가 반영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설문 결과를 통해 받은 부분과 학생 대표가 작성한 참여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졸업생과는 달리 재학생에게도 참여 의견을 요청했는데, 답변 회수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재학생 중,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응답률은 90%에 육박하는데, 반면에 다른 학년들은 응답률이 5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 저학년 학생일수록,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적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5. 대전대학교의 경우, 교육인증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환자군’에 대한 실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필수 환자군이 과별로 정해져 있지만, 필수 환자군을 실제로 다 참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당 2~3회인 참관시간에 해당 환자가 딱 맞게 오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 참관 실습의 주요목적은 필수 환자군 케이스를 모두 보는 것이라기보다, 실제 진료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필수 환자군에 대한 진료법을 연습하는 교육으로는, 예를 들어 부인과에서 11개 필수 환자군이 있다 하면, 1~2학기에 5~6명으로 나눠서 CPX, OSCE, 필기, 실기 시험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질환에 대한 임상역량을 길러주는 식의 방법을 적용 중입니다. 또한 과별 교재와 과목 내용에서 필수 환자군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했습니다.

6. 현재 임상실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전대학교에는 한방병원이 네 곳(서울, 천안, 청주, 대전) 있습니다. 그 중 실습이 가능한 병원인 전문 수련 병원은 대전한방병원과 천안한방병원입니다. 청주한방병원과 서울한방병원은 일반 수련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전과 천안에서 학생들의 실습을 진행하는데, 임상술기센터와 같은 학생 이용공간이 대전한방병원 부근에는 갖춰져 있어서 임상실습의 70% 정도는 이 곳, 대전한방병원에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진료현장을 관찰할 필요도 있고, 천안한방병원의 환자군은 대전과는 또 다르기도 해서, 천안에서도 실습을 과에 따라서 주에 1~2번 정도 진행합니다. (사상 체질은 주 2회 진행)

과거에 제가 재학할 때는 청주도 전문 수련 병원이었고, 대전 구도심에 병원이 하나 더 있어서 둔산(현.대전한방병원), 구도심(구.대전한방병원), 천안, 청주 총 4군데를 돌았습니다.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7. KAS2021에는 외부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다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대전대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임상실습환경의 다변화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는 실습 기간 32주 중, 정규실습을 끝내고 10월 즈음에 자율 선택 실습을 1-2주 진행합니다. KAS2021에 명문화된 기간은 2주 이상인데, 우선 저희는 작년엔 1주를 했고, 또 어느 해엔 2주를 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2주로 계획을 해둔 상황입니다.

자율 선택 실습은 말 그대로 자율실습이라 학교에서 따로 안내하는 건 없습니다. 학생들의 자율 실습을 위해 학교에서 하는 일은,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드리고, 해당 기관에 계신 분들의 한의사 면허증 및 서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율실습 기관에는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재활병원, 한의사들이 임상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소(시내 보건소 제한) 등이 있는데, 한 기관에 2명 이상은 못 가도록 하고 있어서 2주의 기간 동안, 각각 다른 기관으로 한주씩 나눠서 갑니다. 저희도 다양한 단체들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율실습에 협력해주시는 한의원의 경우에는, '대전대학교협력한의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는 있습니다.

8.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경우,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나요?

딱히 정규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크게 없습니다. 간혹 시에서 제안하는 사업에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9. 교육수련병원을 보유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의과/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 수련비율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대전대학교의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교 학생들의 자료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점점 많은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이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크게 알고 들어와야 하는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적으로는 병원에 들어오셔서 배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 수준에선 한의사 면허를 받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나머지는 전문 수료를 하면서 채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 한의사 직군이 미래의 의료체계에 자리 잡기 위해서, 일반의 중심의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지,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지에 대해 교수님의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부인과는 생리통에 침 맞으면 괜찮다, 한약 먹으면 괜찮다와 같은 우리에겐 상식이지만 일반인에겐 보편 지식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일종의 간극이 생긴 상황입니다. 한의학이 의료체계에서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질문주신 내용의 논의 이전에, 이 간극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소비자들에게 ‘허리, 발을 삐었을 때, 침을 맞으면 좋다.’라는 사실은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 되어있는데, 그 외엔 한의학이 일반 치료가 가능하단 인식이 부족하죠. 일반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나 통증 환자만 보는 것도, 현재 한의학에 그 외의 질환에 대한 니즈가 없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모르니까 수요가 없는 것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한의치료도 점차 표준화, 규격화를 하는 중이라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매우 다양한 치료방법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의학의 장점이라 보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치료방법과 이론 역시 치료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거고 결과를 내면 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이론과 방법들을 공식적으로 논문에 실어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표를 한단 의미는 곧 동료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치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일련의 과정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좋은 치료방법과 이론이 있어도 특정 학회 등의 단체 내에서만 공유하는 것 보다는, 국내 한의학회지든, 분과 학회든 저널에 내서 오픈해서 질의도 받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 학부 시절에 학교 교육 이외의 학회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학회활동은 학생 본인께서 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 교육과정의 내용은 다 섭렵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을 안 하고, 다른 걸 하시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 교육은 기본으로 다 익혀야하고, 그 외의 부분은 자기 관심이나 흥미에 따라 심화해나갈 수 있다 봅니다. 가서 공부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테크닉 혹은 지식을 연마하기 위해 가는 것이니까요. 근데 학생 때 기본을 안 하고 가시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 현재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의 선상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해주실 따뜻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기초 공부를 할 때 이게 임상의 어디에 적용되는지 알아야 동기부여가 되실 텐데, 지금의 교육과정에서는 기초에서 배운 내용이 임상에서 배우는 내용과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들께서 공부를 하시니까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 학생의 학습자세가 문제라거나 하기보단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보다 기초과목이 임상 쪽으로 많이 통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의학은 ‘잘 닦여진 활주로를 따라가는 것’이라기 보단 ‘도로를 어디로 개척하느냐?’가 중요한 분야입니다. 타 분야와는 다른 의미에서의 경쟁이 있는 거죠. 다른 분야는 ‘비행기가 어떻게 하면 빠르고, 높이 날아오를까?’가 핵심이라면, 이 분야는 ‘길을 어디다가 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면허를 빨리 받고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돈 잘 벌고 편하게 지내고자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갈수록 편해지지가 않아요. 모두들 그 괴리 속에서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 내외적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분야를 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탐구하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단순히 공부만 많이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학생 때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 심신도 건강하게 하지만 한의사가 되서도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사가 하는 경험은 나중에 환자한테 다 줄 수 있는 재료가 되거든요. 자기가 방향을 잘 갖기만 하고 서 있으면 됩니다. 한 명의 좋은 의사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사서삼경을 전공에 넣는 걸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교양적 요소가 있는 교육 과정이 인성을 수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께서는 자기 중심에 맞게 교육 내용을 흡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의대를 다니시면서 남는 것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동국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한의학개론 I	3	3	0	
		한의학한문 I	2	2	0	
	2	한의학개론 II	3	3	0	
		한의학한문 II	2	2	0	
예과 2학년	1	중국어강독 III	2	2	0	
		의고문 I	2	3	0	
		약용식물학	2	2	0	
		발생학 I	1	2	0	
		의학영어 I	1	2	0	
		동양철학사 I	2	2	0	
		해부학및실습 I	4	4	4	
		조직학및실습 I	2	2	2	
		생화학및실습 I	3	2	2	
	2	중국어강독 IV	2	2	0	
		의고문 II	2	2	0	
		임상본초학 I	2	2	0	
		발생학 II	1	2	0	
		의학영어 II	1	2	0	
		동양철학사 II	2	2	0	
		해부학및실습 II	4	4	4	
		조직학및실습 II	2	2	2	
		생화학및실습 II	3	2	2	
본과 1학년	1	한의임상생리학및실습 I	4	3	2	
		임상본초학 II	2	2	0	
		양방인체생리학및실습 I	2	2	2	
		원전및세미나 I	4	2	4	
		임상약리학및실습 I	2	2	2	
		예방의학및실습 I	2	1.5	1	
		의사학 I	2	2	0	
		미생물학	2	2	0	
	2	한의임상생리학및실습 II	4	3	2	
		임상본초학및실습 I	4	2	4	
		양방인체생리학및실습 II	2	2	2	
		원전및세미나 II	4	2	4	
		임상약리학및실습 II	2	2	2	
		예방의학및실습 II	2	1.5	1	
		의사학 II	2	2	0	
		면역학	2	2	0	
본과 2학년	1	양생학및실습	2	1.5	1	신설
		한의병리학및실습 I	4	3	2	
		한의진단학및실습 I	3	2	2	
		양방병리학 I	2	2	0	

		방제학및실습 I	4	3	2	
		경혈학및실습 I	4	3	2	
		상한론 I	1	2	0	
		양방진단학	2	2	0	
		임상본초학및실습Ⅱ	4	2	4	
	2	한의병리학및실습Ⅱ	4	3	2	
		한의진단학및실습Ⅱ	3	2	2	
		양방병리학Ⅱ	2	2	0	
		방제학및실습Ⅱ	4	3	2	
		경혈학및실습Ⅱ	4	3	2	
		상한론Ⅱ	1	2	0	
		임상총론 I	1	2	0	
		임상총론Ⅱ	1	2	0	
		임상총론Ⅲ	1	2	0	
		임상총론Ⅳ	1	2	0	
		의료기기와한의학및실습	2	1	2	
본과 3학년	1	피부외과학 I	1	2	0	
		간계내과Ⅱ	1.5	3	0	
		심계내과Ⅱ	1.5	3	0	
		비계내과Ⅱ	1.5	3	0	
		폐계내과Ⅱ	1.5	3	0	
		신계내과Ⅱ	1.5	3	0	
		부인과학Ⅱ	2	4	0	
		소아과학Ⅱ	1.5	3	0	
		신경정신과학 I	1	2	0	
		안이비인후과 I	1	2	0	
		한방재활의학과 I	1	2	0	
		진단검사의학 I	1	2	0	
		침구과학Ⅱ	3	6	0	
		영상의학 I	1	2	0	
		상한론Ⅲ	1	2	0	
		사상체질의학 I	1	2	0	
	2	피부외과학Ⅱ	1	2	0	
		간계내과Ⅲ	1.5	3	0	
		심계내과Ⅲ	1.5	3	0	
		비계내과Ⅲ	1.5	3	0	
		폐계내과Ⅲ	1.5	3	0	
		신계내과Ⅲ	1.5	3	0	
		부인과학Ⅲ	2	4	0	
		소아과학Ⅲ	1.5	3	0	
		신경정신과학Ⅱ	1	2	0	
		안이비인후과Ⅱ	1	2	0	
		한방재활의학과Ⅱ	1	2	0	
		진단검사의학Ⅱ	1	2	0	
		침구과학Ⅲ	3	6	0	
		영상의학Ⅱ	1	2	0	
		상한론Ⅳ	1	2	0	
		사상체질의학Ⅱ	1	2	0	
본과 4학년	1	피부외과학및실습 I	1	0	2	
		간계내과및실습 I	1.5	0	3	
		심계내과및실습 I	1.5	0	3	
		비계내과및실습 I	1.5	0	3	

		폐계내과및실습 I	1.5	0	3	
		신계내과및실습 I	1.5	0	3	
		부인과학및실습 I	1.5	0	3	
		소아과학및실습 I	1	0	2	
		신경정신과학및실습 I	1	0	2	
		안이비인후과및실습 I	1	0	2	
		침구학및실습 I	2	0	4	
		사상체질의학및실습 I	1	0	2	
		한방재활의학및실습 I	1	0	2	
		법의학	2	2	0	
		보건법규	2	2	0	
		병원경영학	2	2	0	
		추나학및실습 I	1	0	2	신설
	2	피부외과학및실습Ⅱ	1	0	2	
		간계내과및실습Ⅱ	1.5	0	3	
		심계내과및실습Ⅱ	1.5	0	3	
		비계내과및실습Ⅱ	1.5	0	3	
		폐계내과및실습Ⅱ	1.5	0	3	
		신계내과및실습Ⅱ	1.5	0	3	
		부인과학및실습Ⅱ	1.5	0	3	
		소아과학및실습Ⅱ	1	0	2	
		신경정신과학및실습Ⅱ	1	0	2	
		안이비인후과및실습Ⅱ	1	0	2	
		침구학및실습Ⅱ	2	0	4	
		사상체질의학및실습Ⅱ	1	0	2	
		한방재활의학및실습Ⅱ	1	0	2	
		응급의학	2	2	0	
		추나학및실습Ⅱ	1	0	2	신설

* 일반화학/일반생물학 과목은 예과 1학년 전공 외 필수기초 강의로 각각 두 학기 이수

2) 병원 방문 면담록

- 1) 방문장소 :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
- 2) 방문일자 : 2020년 2월 27일
- 3) 방문자 :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안병웅(가천대), 교육국장 한승훈(동국대)
 - 교육집행위원 : 김지석(가천대)
- 3) 면담교수님 : 임성우 교수님(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1.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상실습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제가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 한방병원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동국대에는 분당한방병원과 일산불교한방병원, 수도권 내에 두 개의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두 병원 모두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수련병원인증을 받은 병원으로, 수련병원으로서 진료과목 수와 병상 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분당한방병원의 경우 15년 이상동안 임상실습 및 교육수련을 하고 있으며, 일산불교한방병원은 올해로 15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에도 대학병원 내 한의원이 있기는 한데, 경주 한의원의 경우에는 병실이 없어 교육수련병원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경주시 용강동에 한방병원이 있어, 교육수련병원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 최근 뉴스를 통해 접한 소식으로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확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확장계획안에 한방병원이 포함되어있는지, 포함되어있다면 얼마정도 확장될 지도 궁금합니다.

한방병원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건물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 차원에서는 현재 동국대 병원이 3차 병원이 아니므로, 3차 병원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병원 규모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진 상황은 아니라 계획이 진행되면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집 발간 시점에서 해당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2. 동국대학교는 경주에서 3년, 일산에서 3년을 학습하는 교육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학습에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동국대는 경주와 일산으로, 두 캠퍼스가 다른 캠퍼스 분리가 있는 학교에 비해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동선이 긴 것은 사실입니다. 캠퍼스 간 거리가 먼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나, 캠퍼스 분리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본과 3, 4학년을 교육하였고, 이제 일산으로 병원과 학교가 이전하면서 본과 2학년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 학년이 다 올라오면 좋겠지만, 정치 및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 학년의 상경은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고, 경주시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옆에 있는 동국대 의대도 사정이 마찬가지입니다.

3. 동국대학교는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함께 있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혹시 현재 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양/한방 협진은 해당 학교에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이 모두 있는 경우, 학교마다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협진을 하는 곳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양/한방 협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교육, 임상 환자 하나를 양/한방 교수님 한 명씩 두고 협진을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이상적인 형태는 구현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는,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동일질환의 양/방협진 시 진료비 보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한방 협진이라는 것은 대학병원도 하지만 다른 교육수련병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졸업한 경희대라고 해서 당장 막연하게 양/한방 협진이 무조건적으로 잘되는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경희의료원이나 강동경희대병원 모두 동국대처럼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이 한 건물 안에 같이 있다는 정도인 것인데요. 그러나 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을 지라도, 병원과 한방병원 간 행정 동선의 거리가 있어서 앞서 말했듯 이상적인 협진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적인 양/한방 협진은 욕심만큼 되진 않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협진체계와 비교를 하는데, 중국은 중의학이라도 단독으로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서의와 같이 진료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입니다. 행위를 중의학으로 하더라도, 중의학 전공자들도 국가 차원에서 임상피지컬, 진단, 영상검사 등을 모두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애초에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시행한 그 국가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행하려 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4. 동국대학교의 경우 2021년에 2주기 인증평가에 들어가는데, 대학에서는 다가오는 2주기 인증평가 또는 KAS2021 이후에, 현행 교육과정과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질까요?

교육과정개편에 관한 큰 틀은 한평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지요. 오늘 면담에 참여를 하신 분들의 소속 학교인 가천대와 동국대는 2021년에 2주기 인증평가를 받게 되며, 세명대학교는 이미 6년 인증을 받은 상황이라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임상실습에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뤄지던 본과 4학년의 임상실습은 총 20여주(1학기 12주, 2학기 8주) 내외 정도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주기 이후로 28주 이상, KAS2021이후로는 50주 이상 실습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상실습교육의 확대는 현대 의학교육의 전반적인 트렌드입니다. 이전에는 한의학(학문)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임상역량이 갖추어진 한의사를 배출하는 것을 한의대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평원의 인증기준을 통해 각 한의대들은 교과과정 개편으로 실습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의학기초과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해당과목들을 컴팩트하고 내실 있게 다지면서 장기적으로는 임상술기역량의 강화로 연계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의 방향에 따라서 나중에는 의사국가고시에서 하듯이, 시험을 이틀로 나누어 국가고시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동국대학교의 경우, 교육인증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환자군’에 대한 실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필수 환자군은 과목별로 수업 받았던 대표적인 질환들을 임상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기준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차원에서 준비를 하여서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상실습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임상실습에 필수 환자군과 같은 개념이 없어, 단지 교수의 진료를 관찰하면서 각 교수의 임상경향만 흡수하는 정도로, 실제적인 교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실제적인 교육방식인 PBL, OSCE, CPX 등을 통해 임상역량교육을 하며 차차 보완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 준비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과거에 비하여 인프라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 KAS2021 인증평가지침에는 유효병상이 100병상 이상 확보되어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는 유효병상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한방병원의 재원환자 수(실시간으로 가동중인 병상 수)는 실시간으로 면밀히 따지면 어떤 순간에는 100병상이 되지 않는 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기준은 재원환자 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가동 가능한 병상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수련병원의 자격요건에는 50병상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평균 50% 정도의 재원환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동국대학교의 경우 일산 70병상, 분당 79병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학교의 경우 100병상이 안 되는 곳이 실질적으로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평원에서 병상 수를 면밀히 따지려고 해당 기준을 만든 것은 아닐 것이므로, 딱 병상 수가 100병상이 아니더라도 전문수련을 할 수 있는 가동률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 KAS2021에는 외부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다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동국대학교의 외부의료기관 임상실습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부 소수 임상과목이 외래교수님 차원에서 외부임상실습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실습 자체는 원칙적으로 학교병원에서 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다양한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수업체계가 수립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8. 한의학 교육에서 임상역량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보충되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대학한방병원에 환자의 수가 많아져서, 임상적인 activity가 이루어지는 임상실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임상실습을 못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PBL, OSCE, CPX 등의 임상역량교육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학교의 한방병원에는 병상 수가 적고 환자가 적습니다. 이건 비단 일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것 입니다. 과거에 한방병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을 때를 생각해볼까요. 과거엔 환자 수만 놓고 보면, 제가 졸업한 경희대학교의 경우, 80년대에 병상이 300개 정도 있었고, 병실은 95% 정도 상시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원대기 환자도 40명 가까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교육환경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그 시기에 비해 훨씬 더 성숙된 임상실습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드웨어가 좋았을 뿐,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는 떨어졌던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금상첨화가 되려면 환자도 많고, 교육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겠지만 인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비교를 해보자면, 의과대학 교육에는 activity가 많습니다. 일례로, 연세대 세브란스의 경우 병원이 매우 큼니다. 병원 옆에는 임상교육관이 있고, 임상교육관의 OSCE room에서 임상역량교육을 시행합니다. 즉, OSCE, 기자재/자료에 대한 준비, 관리 감독을 할 행정력 등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의학대학은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은 임상역량중심 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의대 교육의 방향성은 내실을 다지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내실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요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동국대학교 방문 면담 당시, 공통질문형식이 수립되지 않아 면담록 구성이 타 단위와 많이 상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동신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동양철학	1	2	0	
		비교의학론	1	2	0	
		의학영어1	1	2	0	
		의학중국어1	2	2	0	
		일반한문1	2	2	0	
		한의학개론1	1	3	0	
	2	기공학	1	2	0	
		동양철학2	1	2	0	
		의학기초화학	2	3	0	
		의학영어2	1	2	0	
		의학중국어2	1	2	0	
		인체생물학	2	3	0	
		일반한문2	2	2	0	
		한의학개론2	2	2	0	
예과 2학년	1	경서강독1	1	2	0	
		본초학총론	1	2	0	
		생화학1	1	2	0	
		양방생리학1	1	2	0	
		원전1	2	3	0	
		의사학1	2	2	0	
		의역학	1	2	0	
		의학한문1	1	2	0	
		조직학	1	2	0	
		천연물학	1	2	0	
		한의학원리론1	1	2	0	
		해부학1	3	4	0	
	2	해부학실습1	2	0	4	
		경서강독2	1	2	0	
		본초학1	2	2	0	
		생화학2	1	2	0	
		양방생리학2	1	2	0	
		원전2	2	3	0	
		의료윤리	1	2	0	
		의사학2	2	2	0	
		의학한문2	1	2	0	
		조직학실습	1	0	2	
		한의학원리론2	1	1	0	
		해부학2	3	4	0	
		해부학실습2	2	0	4	
본과 1학년	1	각과학설	1	2	0	
		경혈학1	3	4	0	
		면역학	1	2	0	
		본초학2	4	5	0	

		본초학실습1	1	0	2	
		생리학1	4	5	0	
		약리학1	1	2	0	
		양방병리학1	1	2	0	
		원전3	4	4	0	
		이상심리학	1	2	0	
	2	경혈학2	3	4	0	
		경혈학실습1	1	0	3	
		난경	1	2	0	
		본초학3	4	5	0	
		본초학실습2	1	0	2	
		생리학2	3	4	0	
		생리학실습	1	0	2	
		약리학2	1	2	0	
		양방병리학2	2	3	0	
		원전4	4	4	0	
본과 2학년	1	경혈학3	2	3	0	
		경혈학실습2	1	0	3	
		방제학1	3	4	0	
		방제학실습1	1	0	2	
		병리학1	4	5	0	
		상한론	3	4	0	
		양방진단학1	1	2	0	
		예방의학1	2	3	0	
		진단검사의학1	1	2	0	
		진단학1	2	2	0	
	2	진단학실습1	1	0	2	
		경혈해부학	2	3	0	
		방제학2	2	3	0	
		방제학실습2	1	0	2	
		병리학2	3	4	0	
		병리학실습	1	0	2	
		상한온병학	2	3	0	
		양방진단학2	1	2	0	
		예방의학2	1	2	0	
		예방의학실습	1	2	0	
		진단검사의학2	1	2	0	
		진단학2	2	2	0	
		진단학실습2	1	0	2	
		침구학총론	3	4	0	
본과 3학년	1	간계내과학1	1	2	0	
		방사선과학1	1	2	0	
		부인과학1	2	3	0	
		비계내과학1	1	2	0	
		사상체질의학1	2	3	0	
		소아과학1	1	2	0	
		신경정신과학1	1	2	0	
		신계내과학1	1	2	0	
		심계내과학1	1	2	0	
		안이비인후과학1	1	2	0	
		예방의학3	1	2	0	

		응급의학	2	3	0	
		재활의학1	2	3	0	
		침구과학1	2	3	0	
		폐계내과학1	1	2	0	
		피부외과학1	1	2	0	
	2	간계내과학2	1	2	0	
		방사선과학2	1	2	0	
		부인과학2	2	3	0	
		비계내과학2	1	2	0	
		사상체질의학2	2	3	0	
		소아과학2	2	3	0	
		신경정신과학2	1	2	0	
		신계내과학2	1	2	0	
		심계내과학2	1	2	0	
		안이비인후과학2	1	2	0	
		임상통합실습1	2	0	8	
		재활의학2	2	3	0	
		침구과학2	2	3	0	
		폐계내과학2	1	2	0	
		피부외과학2	1	2	0	
본과 4학년	1	간계내과학실습1	1	0	2	
		보건법규1	1	2	0	
		부인과학실습1	2	0	3	
		비계내과학실습1	1	0	2	
		사상체질의학실습1	1	0	2	
		소아과학실습1	1	0	2	
		신경정신과학실습1	1	0	2	
		신계내과학실습1	1	0	2	
		심계내과학실습1	1	0	2	
		안이비인후과실습1	1	0	4	
		임상통합실습2	2	0	4	
		임상특강1	1	0	2	
		재활의학실습	1	0	2	
		추나학및실습	2	1	2	
		침구과학실습1	2	0	3	
		폐계내과학실습1	1	0	2	
		피부외과학실습1	1	0	2	
	2	간계내과학실습2	1	0	2	
		보건법규2	2	3	0	
		부인과학실습2	2	0	3	
		비계내과학실습2	1	0	2	
		사상체질의학실습2	1	0	2	
		소아과학실습2	2	0	3	
		신경정신과학실습2	2	0	3	
		신계내과학실습2	1	0	2	
		심계내과학실습2	1	0	2	
		안이비인후과실습2	1	0	2	
		예방의학4	2	3	0	
		임상특강2	1	2	0	
		침구과학실습2	2	0	3	
		폐계내과학실습2	1	0	2	
		피부외과학실습2	1	0	2	

2) 병원 방문 면담록

- 1) 방문장소 : 동신대학교 나주한방병원
- 2) 방문일자 : 2020년 8월 24일
- 3) 방문자 :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한승훈(동국대), 기획국장 유영규(동신대)
 - 교육집행위원 : 최호진(가천대), 허운(원광대)
- 4) 면담교수님 : 최진봉 교수님(동신대학교 나주한방병원장),
양승정 교수님(동신대학교 나주한방병원 부인과)

1.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만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문하신 나주한방병원의 경우, 2019년 9월에 개원했습니다.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은 가히 최고 수준이라 자부할 수 있으며, 현재 진료 성과를 높이기 위해 임상 시험 등 꾸준히 여러 가지 를 준비 중입니다. 추가로 나주한방병원은 환자 친화적인 병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들의 보다 나은 입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백 입원실, 한방요법실, 카페 같은 휴게 공간 및 하늘 공원, 병원 앞 산책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체계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 및 임상과목에 대한 교육전담교실은 아직 없지만, 현재 빛가람 클러스터(혁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나주한방병원 6층에 OSCE/CPX 실습실을 10실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실습실을 신축한 관계로 기자재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 기자재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 동신대는 CPX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해당 분야의 논문이 많이 게재되어 있으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신대의 경우, 재정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1. 나주한방병원이 신설되었다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신설된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존에 있던 순천한방병원이 없어지면서, 나주에 한방병원이 신설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이 위치한 나주시의 수요가 있었기에 나주혁신도시에 한방병원이 신설될 수 있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나주병원을 둘러보니, 병원 내에 대강의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이곳으로 옮겨와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인가요?

아마 강의실 수, 제반시설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전체가 옮겨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수요가 충분하다면 검토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동신대학교 한방병원들에서도 현재 양/한방 협진을 진행하고 있나요? 협진을 진행 중이시라면 어떤 형태로 진행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양/한방 협진 시스템이 잘 구축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방이든, 한방이든 대부분 환자군에 대해 모든 진료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저희 동신대 한방병원에서는 환자가 입원을 하면 주로 한방으로 내원하여, 양방에서 서포트하는 형태로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주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양방내과, 방사선과 교수님이 계셔서 내과, 영상의학과에서 협진 가능한 부분을 서포트 중이며, 게다가 내시경을 비롯한 건강 검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국가 공식 검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동신대학교의 경우 2020년에 2주기 인증평가에 들어가는데, 대학에서는 다가오는 2주기 인증평가 또는 KAS2021에 대비해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는 타 학교에 컨설팅을 받아 교육 과정 및 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동신대의 경우, 작년에 대전대와 부산대에 의뢰해서 교육 과정 관련한 부분을 컨설팅 받아 교육 과정을 개편하려 했는데, 절차적 문제가 있어 아마 올해쯤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증평가에서 ‘한의과대학생이 한의사가 됐을 때 1차 임상 역량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결국 한평원에서 모든 학교에게 제시하고 있는 공통 기준에 해당합니다. 결국 모든 한의과대학이 한평원에서 제시하는 공통 기준에 더불어,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미세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평원에선 전세계의과대학(WFME)의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지만,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교원 확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문제가 있어 전체 한의과대학이 겪는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일례로, OSCE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임상술기지침의 대부분이 양방에서 차용한 요소입니다. 제시된 임상술기지침 중, 실제 한의임상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영역은 침, 매선, 뜸 등 일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맥진이나 설진의 경우에는 임상술기를 객관화(지표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한의진료영역 고유의 임상술기지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개선점을 잘 반영하여 한의학교육이 선진화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동신대학교의 경우, 교육인증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환자군’에 대한 실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동신대학교는 대표적인 임상교육방법인 OSCE와 CPX를 활용하여 필수 환자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SCE는 아시다시피 술기 테크닉 위주의 실습이고, CPX는 실제 표준화 모의환자를 보는 것입니다. OSCE의 경우에는, 필수 케이스가 모두 정해져 있어, 해당 항목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PX의 경우에는 현재 1년에 두 가지 케이스 정도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으나,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마 CPX는 전국적 혹은 지역권 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각 지역권별로 3-4개씩 진행해야만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시대가 열려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도 전국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기존보다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듯합니다.

5. 현재 임상실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신대학교에는 나주, 목포, 광주 세 곳에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실습의 경우, 각 병원의 교수님들께서 전담하여 진행하고 계십니다.

6. KAS2021에는 외부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다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동신대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임상실습환경의 다변화를 하고 계신가요?

동신대는 현재 청원한방병원 등 다양한 외부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나요?

동신대는 지역적 입지에 따라 광주, 전남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주로 한약 자원분야 관련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한방특화 사업을 많이 진행합니다.

8. 교육수련병원을 보유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의과/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 수련비율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동신대학교의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규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규모 상으로 큰 편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동신대학교 부속 3개 한방병원의 경우, 병원 및 대학 사정 상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 점점 많은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이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아마 많은 학생들이 한방전문의 수련 시, 다양한 환자군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방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는 대부분 근골격계 통증 환자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 중 어떤 분야를 골라서, 특성화하여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전문의 수련에 지원한다면, 보다 나은 수련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10. 한의사 직군이 미래의 의료체계에 자리 잡기 위해서, 일반의 중심의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지,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지에 대해 교수님의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양방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제도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향후 미래에는 한의제도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11. 앞으로 한의계에 필요한 보건 의료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한의계가 포함된 다양한 정책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입니다. 한의학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현재 자행되고 있는 한의학 폄훼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것입니다.

12. 현재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의 선상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해주실 따뜻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학업에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학생들만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현재 전체 한의과대학의 교과과정 상, 각 과목들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컨대, 같은 질병이라 해도 내과랑 재활의학과에서 다른 변증으로 가르친다든가 하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동신대는 강의에 일관된 흐름을 도입하기 위해, 표준화와 통합과정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동의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경전강독 I	3	3	0	
		일반물리학	2	2	0	
		일반생물학 I	1	2	0	
		의철학 I	1	2	0	
		한의학개론 I	3	3	0	
		기공학 I	1	2	0	
		한방식품학 I	1	2	0	
		동양철학	2	2	0	
	2	의학영어 I	1	2	0	
		경전강독 II	3	3	0	
		일반화학	2	2	0	
		일반생물학 II	1	2	0	
		한의학개론 II	3	3	0	
		의철학 II	1	2	0	
		기공학 II	1	2	0	
		한방식품학 II	1	2	0	
예과 2학년	1	의료와윤리	2	2	0	
		의학영어 II	1	2	0	
		본초총론	2	3	0	
		의료와사회	1	2	0	
		생화학 I	2	3	0	
		원전 I	3	4	0	
		의학한문 I	1	2	0	
		인체발생학 I	2	2	0	
		한의학원리론 I	2	3	0	
		해부학 I	3	6	0	
	2	해부학실습 I	1	0	2	
		의역학 I	1	2	0	
		본초 I	1	2	0	
		본초실습 I	1	0	2	
		생화학 II	3	4	0	
		원전 II	3	4	0	
		의학한문 II	2	2	0	
		인체발생학 II	2	2	0	
		한의학원리론 II	2	3	0	
		해부학 II	3	6	0	
본과 1학년	1	해부학실습 II	1	0	2	
		의역학 II	2	2	0	
		본초 II	2	4	0	
		본초실습 II	1	0	2	
		생리학실습 I	1	0	2	
		면역학 I	1	2	0	
		생리학 I	2	4	0	

		양방생리학 I	2	3	0	
		양방약리학	2	4	0	
		원전Ⅲ	3	4	0	
		의사학 I	2	3	0	
		조직학및실습 I	2	2	2	
		경락경혈학 I	2	4	0	
		경락경혈학및실습 I	1	0	2	
	2	예방의학및양생학	2	3	0	
		본초Ⅲ	2	4	0	
		본초실습Ⅲ	1	0	2	
		생리학실습Ⅱ	1	0	2	
		면역학Ⅱ	1	2	0	
		생리학Ⅱ	2	4	0	
		양방생리학Ⅱ	2	3	0	
		원전Ⅳ	3	4	0	
		의사학Ⅱ	2	3	0	
		조직학및실습Ⅱ	2	2	2	
		경락경혈학Ⅱ	2	4	0	
		경락경혈학및실습Ⅱ	1	0	2	
본과 2학년	1	방제학 I	3	6	0	
		방제학실습 I	1	0	2	
		병리학 I	3	6	0	
		병리학실습 I	1	0	2	
		상한론 I	2	4	0	
		양방병리학 I	2	4	0	
		예방의학및실습 I	2	3	1	
		진단학 I	2	4	0	
		진단학실습 I	1	0	2	
		경락경혈학Ⅲ	2	4	0	
		경락경혈학실습Ⅲ	1	0	2	
	2	예방의학및실습Ⅱ	2	3	1	
		방제학Ⅱ	3	6	0	
		방제학실습Ⅱ	1	0	2	
		병리학Ⅱ	3	6	0	
		병리학실습Ⅱ	1	0	2	
		상한론Ⅱ	2	4	0	
		양방병리학Ⅱ	2	4	0	
		진단학Ⅱ	2	4	0	
		침구과학 I	1	2	0	
		진단학실습Ⅱ	1	0	2	
본과 3학년	1	한방종양학	1	2	0	
		추나학및실습 I	1	0	2	
		간계내과학 I	1	2	0	
		부인과학 I	1	2	0	
		비계내과학 I	1	2	0	
		사상체질의학 I	1	2	0	
		소아과학 I	1	2	0	
		신경정신과학 I	1	2	0	
		신계내과학 I	1	2	0	
		심계내과학 I	1	2	0	
		안이비인후과학 I	1	2	0	
		의학통계	2	2	0	

본과 4학년		임상실습 I	2	0	4	
		침구과학II	1	2	0	
		폐계내과학 I	1	2	0	
		피부외과학 I	1	2	0	
		재활의학과과학 I	1	2	0	
		산과학 I	1	2	0	
	2	방사선과학및실습 I	2	0	2	
		추나학및실습II	2	0	2	
		간계내과학II	1	2	0	
		부인과학II	1	2	0	
		비계내과학II	1	2	0	
		사상체질의학II	1	2	0	
		소아과학II	1	2	0	
		신경정신과학II	1	2	0	
		신계내과학II	1	2	0	
		신침요법학	1	2	0	
		심계내과학II	1	2	0	
		안이비인후과학II	1	2	0	
		임상실습II	2	0	4	
		침구과학III	1	2	0	
		폐계내과학II	1	2	0	
		피부외과학II	1	2	0	
		재활의학과과학II	1	2	0	
		산과학II	1	2	0	
	1	방사선과학및실습II	2	0	2	
		임상병리학및실습	1	0	2	
		보건법규 I	2	2	0	
		약침학	1	2	0	
		간계내과학및실습 I	1	0	2	
		부인과학및실습 I	1	0	2	
		비계내과학및실습 I	1	0	2	
		사상체질의학및실습 I	1	0	2	
		소아과학및실습 I	1	0	2	
		신경정신과학및실습 I	1	0	2	
		신계내과학및실습 I	1	0	2	
		심계내과학및실습 I	1	0	2	
		안이비인후과학및실습 I	1	0	2	
		재활의학과과학및실습 I	1	0	2	
		침구과학및실습 I	1	0	2	
		폐계내과학및실습 I	1	0	2	
		피부외과학및실습 I	1	0	2	
		캡스톤디자인 I	1	0	2	
	2	응급의학및실습	2	0	2	
		보건법규II	2	2	0	
		간계내과학및실습II	1	0	2	
		부인과학및실습II	1	0	2	
		비계내과학및실습II	1	0	0	
		사상체질의학및실습II	1	0	2	
		소아과학및실습II	1	0	2	
		신경정신과학및실습II	1	0	2	
		신계내과학및실습II	1	0	2	

	심계내과학및실습Ⅱ	1	0	2	
	안이비인후과학및실습Ⅱ	1	0	2	
	재활의학과학및실습Ⅱ	1	0	2	
	침구과학및실습Ⅱ	1	0	2	
	폐계내과학및실습Ⅱ	1	0	2	
	피부외과학및실습Ⅱ	1	0	2	
	캡스톤디자인Ⅱ	1	0	2	

2) 병원 방문 면담록

- 1) 방문장소 : 동의대학교 부속 동의의료원
- 2) 방문일자 : 2020년 8월 13일
- 3) 방문자 :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한승훈(동국대), 교육국장 안병웅(가천대), 홍보국장 이주영(동의대)
 - 교육집행위원 : 송수민(동의대), 이건호(동국대)
- 4) 면담교수님 : 박상은 교수님(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내과)

1.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만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장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난 1, 2차 교육인증평가를 거치면서 시설 및 제반사항이 많이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모의실습을 할 수 있는 OSCE실과 CPX실을 많이 확충하였고, 임상술기센터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졸업 후 경험할 로컬 한의원의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기 위해 접수실도 조성하는 등, 학생들에게 실제 환자들을 볼 수 있는 역량을 더 잘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의료원의 장점을 하나 꼽자면, **양/한방 협진이 잘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의과대학이 같이 있는 한의과대학을 제외한 다른 한의과대학이 있는 병원들과 비교했을 때 말이죠. 동의의료원은 양방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협진이 잘 이뤄지고 있는 편입니다. 기존에 1차 협진 시범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해당사업의 평가가 상당히 좋아서 현재 2차 협진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 동의대학교 부속 동의의료원에서는 양/한방 협진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협진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동의의료원에서는 협진이 양방에서 한방으로, 한방에서 양방으로 상호 트랜스퍼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이것을 각 센터별로도 진행하고, 각 진료과목 별로도 진행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양/한방 EMR 시스템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상호 트랜스퍼된 환자에게 어떤 수술 혹은 전처리를 했고 약을 투여했는지를 EMR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간계내과 암환자가 피곤해하고 간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면 양방(가정의학과, 내과)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혈액검사를 의뢰해서 검사항목 CBC 등등을 EMR에 입력하고 특정 과 의사를 지정하면 접수가 됩니다. 양방 의사들이 EMR을 확인하고 검사를 한 후 결과를 입력하면 한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양방 외래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어떤 약을 먹는지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양방에서는 MCA 파열로 마비가 됐으니 침 치료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에서 보고 일주일에 3번 하겠다 등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상대의 치료를 인정하고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 terminal 뇌종양 환자가 있는데, 양방 FM에서는 비타민 B12를 화요일부터 이틀에 한 번씩 투여를 하겠다고 하면, 양방 약 투여가 없는 날에 약침을 놓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치를 해야 하는데 안 하겠다고 한 때는 없었습니다.

2-1 동의의료원에는 암센터도 있던데, 암센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한의학적 진료를 하고 계신가요?

동의의료원에서 암 치료를 시작한 지는 오래되진 않았습니니다. 현재 저희 동의의료원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한의학적인 치료를 하거나 면역력을 높이거나 전이를 줄이거나 항암, 방사선 등의 치료를 하면서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침이나 약침은 암에 충분히 효과가 있고,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암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한의학적 진료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방적으로도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어떤 약을 먹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사이드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미리 한약을 써서 대비를 하거나, 환자에게 언질을 하거나 해야 합니다.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더 예민한데, 이럴 때 이렇게 한다고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환자와 충분한 라포를 쌓으면서 진료해서 환자가 더 잘 따라오게 됩니다.

3. 동의대학교의 경우 2020년에 2주기 인증평가에 들어가는데, 대학에서는 다가오는 2주기 인증평가 또는 KAS2021에 대비해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2주기 한의학교육인증평가에서는 물론 기초가 배제되진 않지만, 주로 임상실습과 교육 부분에서 졸업성과 관련한 부분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2주기에서 강조하는 임상실습 및 졸업성과와 더불어서, 기초과목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를 위해 기초 교수님들께서, 기초과목 수업에서도 단순한 강의실 수업 외의 PBL, 발표 수업 등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해보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십니다.

4. 교육인증평가를 받을 시, 그 준비과정에서 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의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정개편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까요?

현재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실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그것이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받은 자료도 교육과정개편에 참고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동의대학교의 경우, 교육인증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환자군’에 대한 실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CPX에서 특히 환자군이 필요한데, 한 대학에서만 준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환자군 모듈을 위해서 환자 교육을 시킨 후 부산대 한의전, 대구한의대, 동국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담당 교수님께 여쭙본 결과 심계와 재활과에서는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컨소시엄을 통해 CPX 환자군을 교육하고 개발합니다. 환자분들이 본인이 연기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도록 하고, 편차도 없이 확실하게 시연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영남권 대학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환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모듈을 만들자고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임상실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동의대에서는 2주기 인증평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임상실습을 양과 질의 측면에서 모두 향상했습니다. 우선 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전공의 1명 당 5명 내외의 학생들이 배정되게 하여 임상실습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병원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 1차 한의원에서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을 통해서 실제로 로컬에서 어떤 진료가 이뤄지는지 보고,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부, 추나와 근골격계, 암을 주로 보는 한의원 등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실제 학생들이 어떻게 진료가 이뤄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동의대학교에서는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 임상실습도 활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동의대학교에서 협력하고 있는 외부의료기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한의원의 경우 1차 로컬 한의원이 주입니다. 각각 한의원에 부탁을 해서, OK를 하면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도록 협력 한의원에 부탁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한의원만 볼 수도 있지만, 피부를 전문으로 하는 한의원이나 추나, 근골격 한의원 등 특성화 한의원에도 협조요청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저희 동의의료원 외에, 부산한방병원 등의 한방병원에 의뢰해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여러 군데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8.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나요?

각각 교수님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 동남권 원자력 센터와 MOU를 맺어서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아과 쪽에서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고, 베트남에 가서 컨벤션 참가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해서 부산광역시에서 의료관광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암 환자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 교육수련병원을 보유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의과/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 수련비율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동의대학교의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본래 동의의료원의 수련의/전문의 정원은 각 연차 당 6명입니다. 동의의료원 내 한방 수련의 및 전문의 수는 총 인턴 1명, 레지던트 1년차 6명, 레지던트 2년차 6명, 레지던트 3년차 5명입니다. 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점점 많은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이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전문의 수련의 특성은 보다 다양한 환자, 증상이 좀 더 심한 환자를 본다는 것입니다. 암센터 같은 경우도 초기보다는 terminal 환자들이 오면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전문의 수련을 하면 후에 임상에서 한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의의료원의 경우, 양/한방 협진을 하기 때문에 수련 시 양방적인 처치나 검사, 치료법 등을 볼 수 있고, 환자를 매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턴 때 제일 힘들어 하는 게 허드렛일만 하고 있는 거죠. 레지던트의 장점은 입원환자는 매일 직접 볼 수가 있고, 약을 썼을 때 내일 바뀌도 되고, 처방을 바뀌가면서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을 쓸 때 보통 달여 놓은 약을 준다거나 일주일 단위 등으로 주게 되면 약을 제대로 먹는지, 먹고 나서 반응이 어땠는지 매일 체크가 안 되는데 병원에서는 가능합니다. 또 치료 후 환자의 반응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네요. 임상이 좀 더 숙련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 공부한 것을 바로바로 쓸 수 있어요. 보통 수련의 때 TP를 배우고 환자들에게 가면 환자들은 TP만 맞고, 약침을 배우면 또 약침을 쓰고, 약을 배우면 약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양인은 석고를 많이 쓰는데, 석고는 찬 약이므로 설사 등을 일으켜서 많이 쓰기가 힘들어서 또 다른 약을 함께 쓰면서 석고를 높였는데 증상이 좋아져서 마지막에는 한 첩당 석고가 5돈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게 로컬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병원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1. 현재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의 선상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해주실 따뜻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한의학이 학과도 너무 많고, 다양한 이론이 많다보니 기초 공부를 할 때는 친한 선배나 학교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한 부분만 보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 임상에 나갔을 때는 딱 맞는 것이 없는 게 있습니다. 기초 공부를 하는 학생 때는 한 가지 방법론에 매몰되기보다는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임상에 나왔을 때 다양한 경우들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8. 부산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가. 학사과정 (* 학사 신입생으로 입학 시 이수)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학사 1학년	1	대학한문 I	2	2	0	
		기초물리학및실험	2	1	2	
	2	통합의생명과학및실험I	3	2	2	
		대학한문 II	2	2	0	
		의학공부를위한기초화학및실험	2	1	2	
학사 2학년	1	의학통계학	2	1	2	
		통합의생명과학및실험II	3	2	2	
		논리와인식	2	2	0	
	2	의료인문학I	2	2	0	
		과학적사고와의학연구방법론	2	2	0	
		통합의생명과학및실험III	3	2	2	
학사 3학년	1	한의학실험연구 I	2	2	0	
		의료인문학II	2	2	0	
		생화학	3	3	0	
		한의학문화	2	2	0	
	2	의료인문학III	2	1	2	
		분자세포생물학	3	3	0	
		한의학실험연구 II	2	1	2	

나. 석사과정 (* 학사과정 이수 후, 혹은 한의학전문대학원으로 바로 입학 시 이수)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석사 1학년	1	인체의장상과양생(I)	3	3	0	
		분자세포의학	2	1.5	1	
		인체의구조와기능(I)	7.5	6.5	2	
		현대사회와한의학(I)	1.5	1.5	0	
		한의학입문	5.5	5.5	0	
		선택과정(I)	1.5	1.5	0	
	2	인체의구조와기능(II)	3.5	3	1	
		인체의장상과양생(II)	5.5	5	1	
		경락경혈학(I)	3.5	3	1	
		인체질환의인식과해석(I)	3.5	3.5	0	
		인체반응과질병의원리(I)	2	2	0	
		현대사회와한의학(II)	1.5	1.5	0	
		선택과정(II)	1.5	1.5	0	
		한의학연구과정(I)	0	0	6	신설

석사 2학년	1	인체질환의인식과해석(II)	6	6	0	
		경락경혈학(II)	2.5	2	1	
		본초방제학(I)	5.5	5	1	
		인체반응과질병의원리(II)	4	3.5	1	
		현대사회와한의학(III)	1.5	1.5	0	
		선택과정(III)	1.5	1.5	0	
		한의학연구과정(II)	0	0	6	신설
	2	임상의학입문	4	4	0	
		본초방제학(II)	7.5	7	1	
		상한론	3.5	3.5	0	
		침구의학	2.5	2.5	0	
		재활의학	1.5	1.5	0	
		현대사회와 한의학(IV)	1.5	1.5	0	
		선택과정(IV)	1.5	1.5	0	
		한의학연구과정(III)	0	0	0	신설
석사 3학년	1	소아과학(I)	2	2	0	
		근골격학(I)	2	2	0	
		사상의학(I)	2	2	0	
		안이비인후피부외과학(I)	2.5	2	1	
		부인과학(I)	2	2	0	
		증후학(I)	3.5	3.5	0	
		내과학(I)	6.5	6.5	0	
		신경정신과학	1.5	1.5	0	
		한의학연구과정(IV)	0	0	0	신설
	2	안이비인후피부외과학(II)	1	1	0	
		선택과정(V)	1.5	1.5	0	
		임상실습입문	2	2	0	
		내과1임상실습(I)	1.5	0	3	
		내과2임상실습(I)	1.5	0	3	
		내과3임상실습(I)	1.5	0	3	
		침구의학과임상실습(I)	2	0	5	
		부인과임상실습(I)	1.5	0	3	
		소아과임상실습(I)	1.5	0	3	
		신경정신과임상실습(I)	1.5	0	3	
		안이비인후과임상실습(I)	1.5	0	3	
		사상의학과임상실습(I)	1.5	0	3	
		임상연구센터임상실습(I)	1	0	2	
		제제임상실습(I)	1	0	2	
		재활의학과임상실습(I)	1.5	0	3	
		추나의학임상실습(I)	0.5	0	2	신설
		소아과학(II)	1	1	0	
		증후학(II)	4.5	4.5	0	
		내과학(II)	1	1	0	
		부인과학(II)	1.5	1.5	0	
		근골격학(II)	1.5	1.5	0	
		사상의학(II)	1	1	0	
석사 4학년	1	내과1임상실습(II)	1.5	0	3	
		내과2임상실습(II)	1.5	0	3	
		내과3임상실습(II)	1.5	0	3	
		침구의학과임상실습(II)	2	0	5	
		부인과임상실습(II)	1.5	0	3	

		소아과임상실습(II)	1.5	0	3	
		신경정신과임상실습(II)	1.5	0	3	
		안아비인후과임상실습(II)	1.5	0	3	
		사상학과임상실습(II)	1.5	0	3	
		임상연구센터임상실습(II)	1	0	2	
		제제임상실습(II)	1	0	2	
		재활의학과임상실습(II)	1.5	0	3	
		추나의학임상실습(II)	0.5	0	2	신설
		임상실습종합평가	2	0	4	
		문제바탕학습	3	3	0	
		한양방협진방법론	1.5	1.5	0	
		현대사회와한의학(V)	2.5	1.5	2	
	2	선택실습	4	1	7	
		한의학연구	2.5	2.5	0	
		임상증례토론	6	6	0	
		특성화실습	5	1	11	
		세미나 및 특강	4	4	0	
		현대사회와 한의학(VI)	1.5	1.5	0	

② 전공선택과목

대상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실기(시수)	비고
학사 1학년	2	인간성탐구	3	3	0	
학사 2학년	1	건강문화론	3	3	0	
		실험동물학	3	2	2	
		사서강독I	3	3	0	
		한의학리더를위한독서토론I	3	3	0	
	2	한의학리더를위한독서토론II	3	3	0	
		사서강독II	3	3	0	
		비교해부학	3	3	0	
학사 3학년	1	인체발생학	3	3	0	
		미생물학	3	2	2	
		심리학개론	3	3	0	
		의료인류학 개론	3	3	0	
	2	보건영양과학	3	3	0	
		면역학	3	3	0	
		의학영어	3	3	0	
석사 전체	1	평생학습과전문직업성개발(I)	2	0	4	
		한의학심화연구(I)	0	0	5	
	2	평생학습과전문직업성개발(II)	2	0	4	
		한의학심화연구(II)	0	0	5	

9. 상지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의학물리(1)	2	2		
		한문(1)	3	3		
		중국어강독(1)	2	2		
		한의학개론(1)	3	3		
		의료윤리학	2	2		
		생물학(1)	2	2		
	2	의학화학(2)	2	2		
		중국어강독(2)	2	2		
		한문(2)	3	3		
		한의학개론(2)	3	3		
		생물학(2)	1	2		
		의철학	2	2		
예과 2학년	1	의학용어	2	2		
		생화학(1)	2	2		
		약용자원학	2	2		
		의학통계실습1	1		2	
		생리학 I (1)	3	4		
		원전 I (1)	2	3		
		의사학 I (1)	1	2		
		의학한문(1)	2	2		
		의학통계 I	1	1		
	2	생화학(2)	2	2		
		분자생물	1	2		
		의학통계실습Ⅱ	1		2	
		의학통계	1	1		
		의학한문(2)	2	2		
		해부학총론	2	2		
		의학사 I (2)	1	2		
		생리학 I (2)	3	4		
		원전 I (2)	2	3	2	
본과 1학년	1	상한론(1)	2	3		
		생리학Ⅱ(1)	3	4		
		원전Ⅱ(1)	3	4		
		각과학설(1)	1	2		
		생리학실습(1)	2		2	
		해부학(1)	2	4		
		해부학실습(1)	1		2	
		면역학	2	2		
		본초학총론	1	2		
		처방제형학(1)	1	2		
		경혈학 I (1)	1	2		
		경혈학실습 I (1)	1		2	
	2	상한론(2)	2	3		
		생리학Ⅱ(2)	3	4		

		원전Ⅱ(2)	3	4		
		각가학설(2)	1	2		
		본초학실습(1)	1		2	
		경혈학실습 I (2)	1		2	
		생리학실습(2)	1		2	
		해부학	2		4	
		해부학실습(2)	1		2	
		처방제형학(2)	1	2		
		본초학(1)	3	4		
		경혈학 I (2)	1	2		
본과 2학년	1	방제학 I (1)	2	3		
		방제학실습	2		3	
		경혈학Ⅱ(1)	2	3		
		경혈학 실습Ⅱ(1)	2		3	
		예방의학 I (1)	2	3		
		예방의학 I 실습(1)	1		2	
		진단학(1)	1	2		
		진단학 실습(1)	1		2	
		병리학Ⅱ(1)	2	3		
		병리학실습(1)	1		2	
		약리학 I (1)	1	2	2	
		약리학실습(1)	1	2		
		본초학(2)	3	4		
		본초학실습(2)	1		2	
		온병학 I (1)	1	2		
	2	방제학 I (2)	1		2	
		방제학 실습(2)	1	2		
		경혈학Ⅱ(2)	3	4		
		경혈학 실습Ⅱ(2)	1	2		
		병리학Ⅱ(2)	1	2		
		병리학실습(2)	3	5		
		예방의학 I (2)	1	2		
		예방의학 I 실습(2)	1	2		
		진단학(2)	1		2	
		진단학 실습(2)	2	3		
		약리학 I (2)	2	3		
		약리학 실습(2)	1	2		
		임상진단학	1	2		
		온병학 I (2)	1	2		
1본과 3학년	1	약침학	1	2		
		간계내과학(1)	1	2		
		심계내과학(1)	1	2		
		비계내과학(1)	1	2		
		폐계내과학(1)	1	2		
		신계내과학(1)	1	2		
		소아과학(1)	1	2		
		신경정신과학(1)	1	2		
		사상의학(1)	1	2		
		영상의학(1)	1	2		
		부인과학(1)	2	4		
		안이비인후과학(1)	1	2		
		재활의학과학및이학요법(1)	1	2		

본과 4학년		침구의학(1)	2	4		
		피부외과학(1)	1	2		
		예방의학Ⅱ(1)	1	2		
		진단검사의학	1	2		
		생기능의학(1)	1	2		
		법의학	1	2		
	2	임상특강 I	1	2		
		간계내과학(2)	1	2		
		심계내과학(2)	1	2		
		비계내과학(2)	1	2		
		폐계내과학(2)	1	2		
		신계내과학(2)	1	2		
		소아과학(2)	1	2		
		신경정신과학(2)	1	2		
		영상의학(2)	1	2		
		사상의학(2)	1	2		
		부인과학(2)	2	4		
		안이비인후과학(2)	1	2		
		침구의학(2)	2	4		
		피부외과학(2)	1	2		
		추나학	1	2		
		생기능의학(2)	1	2		
		예방의학Ⅱ(2)	1	2		
		재활의학과및이학요법(2)	1	2		
	1	내과학임상실습 I (1)	2		4	
		내과학임상실습Ⅱ(1)	2		4	
		내과학임상실습Ⅲ(1)	1		2	
		사상의학임상실습(1)	1		2	
		부인과학임상실습(1)	2		4	
		소아과학임상실습(1)	1		2	
		신경정신과학임상실습(1)	1		2	
		안이비인후과학임상실습(1)	1		2	
		보건의료법규(1)	2	2		
		재활의학과학임상실습(1)	2		4	
		침구의학임상실습(1)	3		5	
		피부외과학임상실습(1)	1		2	
		응급의학	1	2		
	2	내과학임상실습 I (2)	2		4	
		내과학임상실습Ⅱ(2)	2		4	
		내과학임상실습Ⅲ(2)	1		2	
		사상의학임상실습(2)	1		2	
		부인과학임상실습(2)	2		4	
		신경정신과학임상실습(2)	1		2	
		안이비인후과학임상실습(2)	1		2	
		보건의료법규(2)	2	2		
		피부외과학임상실습(2)	1		2	
		재활의학과학임상실습(2)	2		4	
		침구의학임상실습(2)	3		5	
		소아과학임상실습(2)	1		2	

② 전공선택과목

대상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실기 (시수)	비고
본과 4학년	1	임상MPS	1	0	2	
	2	선택임상실습	1	0	2	

2) 병원 방문 면담록

- 1) 방문장소 :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 2) 방문일자 : 2020년 8월 27일
- 3) 방문자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안병웅(가천대), 교육국장 한승훈(동국대), 의장 현민욱(원광대)
사무국장/수석부의장 이준석(상지대)
 - 교육집행국 : 최호진(가천대)
- 4) 면담교수님 : 차운엽 교수님(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장)

1.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만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음, 우선 애로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대인 부산대학교 한의전을 제외한, 11개 한의과대학에서는 한의과대학이 보다 잘 되려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재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지대학교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대학 자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구 재단에서 대학운영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횡령, 배임하여 학교의 상황이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과거 강원 영서권 내에서 꽤 우수한 학교이던 상지대학교의 위상도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지대학교는 재학생 충원 비율이 80~90% 정도에 머물고 있어, 구 재단을 청산하고 난 지금도, 학교 재정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 재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대학 자체의 부채도 많아서, 3년 전부터는 상지대학교 교수 및 직원 전원의 연봉 18%를 삭감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자체가 기반이 많이 약하고, 그 속에 한의대가 있다 보니, 한의대가 성장을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최근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탈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당시에도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하여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1, 2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내에서도 예전의 이미지를 차곡차곡 찾아가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는 상지대학교가 더 안정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 고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학교의 애로사항을 길게 말씀드리다 보니, 장점에 대한 설명이 늦어졌습니다. 저희 상지대학교의 장점은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비교적 좋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연결되는 전철이 생기게 된다면 교통 인프라는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또, 저희 상지대학교는 자타가 인정하는 민주대학의 성지입니다. 비록 과거 재단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상지대학교에는 학생들이 최대한 총장님과 갖는 회의 등 간담회에 다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체계가 잘 잡혀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 좋아하는 별명은 아니지만,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저희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이 ‘해븐 상지’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그 별명에 걸맞게 전공과목을 적절한 수준으로 잘 이수한다면, 터무니없이 유급을 시키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2. 상지대학교 한방병원에서도 현재 양/한방 협진을 진행하고 있나요? 협진을 진행 중이시라면 어떤 형태로 진행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상지대학교 한방병원에는 개원 당시부터 옆에 양방 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한방 병원은 대학소속인데 의원은 대학법인소속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같은 소속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의 경우에는 양방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한방 진료를 위한 서포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서포트 자체도 각 한방진료과목 중심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암센터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통합 암센터 쪽에서는 보통 통증 케어와 수액을 다는 등의 서포트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T도 2020년 9월 기준으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3. 상지대학교의 경우, 2023년에 KAS2021인증평가에 들어가는데, 대학에서는 다가오는 KAS2021에 대비해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존 1, 2주기 인증평가에서는 대학의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인증평가를 최소한의 기준들만 충족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KAS2021을 대비해서는, 우선 OSCE, CPX 실습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가고시가 개편되면 2025-2026년에는 현재 의과대학 국가고시처럼 술기 국가고시가 시행이 될 텐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우선 작년에는 2건 정도를 실습했는데, 2020년에는 4건 정도로 늘리는 것으로 회의가 되고 있고, 해마다 케이스를 늘려서, 곧 10건을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배정해서 OSCE, CPX실을 조성하는 등 시설 또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KAS2021에는 외부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다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상지대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임상실습환경의 다변화를 하고 계신가요?

현행 실습수업이 15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10주-11주 정도의 임상실습을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4주 정도는 선택임상실습이라고 해서 한의과대학하고 연계되어 있는 주위의 협력 한의원에 많이 참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꼭 원주 지역 내에 있는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이 아니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곳도 사전에 협의가 되면, 선택임상실습으로 인정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석 및 실습점수는 협력 의료기관으로부터 출석부와 점수표 같은 것들을 받아서 평가에 수렴을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실습을 진행하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5.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나요?

제가 연구 책임자로서 참여했던, 약 5억원 규모의 디지털-e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현행 법 상,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지역 의료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위한 원격 건강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원도 내의 고저면, 영월, 철원, 옥계, 이렇게 5개 지역과 연계를 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업 직영부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강원도 지자체가 함께 회의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최근에 해당 사업에 대해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관계자랑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왔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더욱 고립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 다시 그 사업이 연장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저희 학교 한방병원장을 역임하게 되면 동시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이사로 참여를 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에 있는 회사들과 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전부터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협 주관 농어민행복버스는 의료봉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다른 학교에서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올해도 정말 많은 장소를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6. 교육수련병원을 보유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의과/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 수련비율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상지대학교의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학교를 떠나서, 한의계 전체에서 전문의의 비율이 15%에 불과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진 않아요. 의과는 전문의 비율이 8~90%가 되는데, 의과는 이렇게 전문의 비율이 높아 학생들이 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목표로 해서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의과도 전문의 비율이 저렇게 높아진다면 학생들이 전문의를 목표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장을 안 했던 때에는, 교육부장도 하고, 진료부장도 해봤는데, 어떤 직책을 맡든 간에 항상 가능하면 수련의를 많이 뽑자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련의에 대해 10년 전까지는 학생들의 수요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수련의를 많이 뽑았었어요. 한 연차에 10명도 뽑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8명, 5명 ... 이렇게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작년(2019년)에 4~5명 선발 할 것이라 공지를 했는데, 2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수요가 있다면, 그리고 여건이 된다면 무조건 더 많이 뽑고 싶은 것이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7.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이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저희 병원에 지원을 하게 되신다면, 현실적으로 저희 병원의 현황에 맞게 근무를 잘 해줬으면 합니다. 저희 병원의 경우 대학 병원 중에 가장 급여가 낮은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 현재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의 선상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해주실 따뜻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음, 시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아무래도 한의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상대적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이었던 90년대 초반에는 이제 동의보감, 유경, 황제내경 등 고서의 제대로 해석된 책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주로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책을 읽기 위해서 한자 공부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년마다 대학, 중용 책을 외우게 하기도 했었거든요. 시대적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처방이나 방제 같은 것도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다 나오고, 번역본들도 잘 나와서 굳이 더 많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의학이란 학문이, 공부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내용이 밀도 끝도 없이 너무 많은 점도 한의학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한의학이 본래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이다 보니, 공부를 할 때 그것을 밑바탕에 깔아 두는 것이 보다 한의학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기초한문이나 원전 이런 과목의 시수를 줄였으면 좋겠지만

요. 아직까지 한의학 교육이 ‘정신’과 ‘실용’ 중, 무엇을 취해야 할 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술기 중심의 의학이 발전해나가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한의학도 보다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들보다도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데에는 한의대 커리큘럼 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바탕으로 다음 과목을 배운다.’ 하는 연계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의학 교육에는 이러한 연속성이 부족하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모든 한의대들이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많이 조정을 했었지만, 교수님들께서 채워야 하는 기본 수업시수도 얹여있고 해서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얹여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중에는 예과 때는 기초과목을 다 끝내고, 본과 1, 2학년에서 임상과목 총론을 학습하여 기초과목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본과 3, 4학년 때 임상과목을 배우는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조정하여 현재 교육과정에 내재되어 있는 연계성 부족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직 혼란스럽더라도, 본과 4학년 즈음 되면 대부분 좀 정리가 되실 것이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9. 앞으로 한의계에 필요한 보건 의료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한의학사의 이권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X-ray와 같은 의료기기나 사용가능한 의약품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통제, 에피네프린, 포도당 수액과 같은 간단한 의약품들이 한의원에 더 구비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의학사 구성원의 90%가 1차 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환자들 진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어필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니 조금 아쉽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입장에서는 물리치료기계 관련 비급여 행위를 급여화하는 것 등을 추진했는데, 장기적으로 현재 한의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 급여항목으로 보장이 되면 진료가 더욱 용이해질 것입니다.

10. 세명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한의학원론 I	2	3	0	
		의료정보학 I	2	2	0	
	2	한의학개론 II	2	3	0	
		의료정보학 II	2	2	0	
		미생물학	1	2	0	
		동의보감 I	1	2	0	
		기공학실습	1	0	2	
예과 2학년	1	한방의료윤리	2	2	0	
		예방한의학 I	1	2	0	
		발생학	1	2	0	
		동의보감 II	1	2	0	
		생리학및실습 I	4	5	2	
		의학한문 I	3	4	0	
		의학사 I	2	3	0	
		생화학 I	3	3	0	
		의학통계	1	2	0	
	2	예방한의학 II	1	2	0	
		조직학및실습	2	2	2	
		생리학및실습 II	4	5	2	
		의학한문 II	3	4	0	
		의학사 II	1	2	0	
		의역학	1	2	0	
		생화학 II	3	3	0	
		동의보감 III	1	2	0	
본과 1학년	1	해부학및실습 I	4	4	4	
		병리학및실습 I	4	5	2	
		양방생리학 I	2	3	0	
		원전 I	3	5	0	
		동의보감 IV	1	2	0	
		면역학	1	2	0	
		본초학및실습 I	2	2	2	
	2	경혈학및실습 I	4	3	4	
		해부학및실습 II	4	4	4	
		병리학및실습 II	4	5	2	
		양방생리학 II	2	3	0	
		원전 II	3	5	0	
		본초학및실습 II	3	3	3	
		동의보감 V	1	2	0	
		경혈학및실습 II	4	3	4	
본과 2학년	1	임상병리학 I	1	2	0	
		방제학및실습 I	3	3	3	
		침구학 I	1	2	0	
		예방의학및실습 I	3	3	3	

		각가의론 I	2	3	0	
		약리학 I	1	2	0	
		양방병리학 I	2	3	0	
		상한론 I	2	3	0	
		진단학및실습 I	2	3	1	
		본초학및실습Ⅲ	3	3	3	
		동의보감Ⅵ	1	2	0	
	2	방제학및실습Ⅱ	3	3	3	
		침구학Ⅱ	1	2	0	
		예방의학및실습Ⅱ	3	3	3	
		각가의론Ⅱ	2	3	0	
		약리학Ⅱ	1	2	0	
		양방병리학Ⅱ	2	3	0	
		상한론Ⅱ	2	3	0	
		금궤요략	1	2	0	
		의안분석	1	2	0	
		진단학및실습Ⅱ	2	3	1	
		포제학및실습	1	1	2	
		임상병리학Ⅱ	1	2	0	
		동의보감Ⅶ	1	2	0	
본과 3학년	1	소아과학 I	2	3	0	
		안이비인후과학 I	1	2	0	
		간계내과학 I	1	2	0	
		심계내과학 I	1	2	0	
		비계내과학 I	1	2	0	
		폐계내과학 I	1	2	0	
		신계내과학 I	1	2	0	
		피부외과학 I	1	2	0	
		보건법규 I	1	2	0	
		경근치료학	1	2	0	
		방사선학 I	1	2	0	
		사상의학 I	1	2	0	
		신경정신과학 I	1	2	0	
		법의학	1	2	0	
		재활의과학 I	1	2	0	
		침구학Ⅲ	1	2	0	
		부인과학 I	2	3	0	
		의학진단학 I	1	2	0	
	2	소아과학Ⅱ	2	3	0	
		안이비인후과학Ⅱ	1	2	0	
		간계내과학Ⅱ	1	2	0	
		심계내과학Ⅱ	1	2	0	
		비계내과학Ⅱ	1	2	0	
		폐계내과학Ⅱ	1	2	0	
		신계내과학Ⅱ	1	2	0	
		피부외과학Ⅱ	1	2	0	
		보건법규Ⅱ	1	2	0	
		신경정신과학Ⅱ	1	2	0	
		약침학	1	2	0	
		사상의학Ⅱ	1	2	0	
		응급의학	1	2	0	
		재활의과학Ⅱ	1	2	0	

본과 4학년		침구학Ⅳ	1	2	0	
		부인과학Ⅱ	2	3	0	
		의학진단학Ⅱ	1	2	0	
	1	간계내과학임상실습Ⅰ	1	0	2	
		심계내과학임상실습Ⅰ	1	0	2	
		비계내과학임상실습Ⅰ	1	0	2	
		폐계내과학임상실습Ⅰ	1	0	2	
		신계내과학임상실습Ⅰ	1	0	2	
		부인과학임상실습Ⅰ	2	0	4	
		소아과학임상실습Ⅰ	2	0	3	
		침구학임상실습Ⅰ	2	0	4	
		신경정신과학임상실습Ⅰ	1	0	2	
		재활의학과학임상실습Ⅰ	1	0	2	
		안이비인후과학임상실습Ⅰ	1	0	2	
		피부외과학임상실습Ⅰ	1	0	2	
		사상의학임상실습Ⅰ	1	0	2	
		병원경영실습Ⅰ	1	0	2	
	2	간계내과학임상실습Ⅱ	1	0	2	
		심계내과학임상실습Ⅱ	1	0	2	
		비계내과학임상실습Ⅱ	1	0	2	
		폐계내과학임상실습Ⅱ	1	0	2	
		신계내과학임상실습Ⅱ	1	0	2	
		부인과학임상실습Ⅱ	2	0	4	
		소아과학임상실습Ⅱ	2	0	3	
		침구학임상실습Ⅱ	2	0	4	
		신경정신과학임상실습Ⅱ	1	0	2	
		재활의학과학임상실습Ⅱ	1	0	2	
		안이비인후과학임상실습Ⅱ	1	0	2	
		피부외과학임상실습Ⅱ	1	0	2	
		사상의학임상실습Ⅱ	1	0	2	
		병원경영실습Ⅱ	1	0	2	

② 전공선택과목

대상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실기(시수)	비고
본과 4학년	1	임상실습캡스톤디자인Ⅰ	1	0	2	택1 (중복이수불가)
		추나의학및실습Ⅰ	1	0	2	
		근골격계방사선실습Ⅰ	1	0	2	
	2	성형침구임상실습	1	0	2	택1 (중복이수불가)
		임상실습캡스톤디자인Ⅱ	1	0	2	
		추나의학및실습Ⅱ	1	0	2	

2) 병원 방문 면담록

- 1) 방문장소 : 세명대학교 제천한방병원
- 2) 방문일자 : 2020년 8월 29일
- 3) 방문자 :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안병웅(가천대), 기획국장 변대현(세명대)
 - 교육집행위원 : 김소연(세명대), 이기은(세명대), 최호진(가천대)
- 4) 면담교수님 : 김형준 교수님(세명대학교부속제천한방병원장)

1.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만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은 학생 수와, 기초 및 임상 교수님들의 수도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학교에서 학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 대학에 비해 지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며 캠퍼스 주변의 환경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학과 내 교수님들의 사이도 전반적으로 좋아서 학과 내 화합이 잘 이루어집니다. 제천이 대학교 한방병원이 있는 도시 중에서도 인구수가 가장 적고 도시 자체가 작은 편이라 환자 수가 적을 수 있지만, 한방병원 운영 상황이 좋아서 학생들이 와서 병원 실습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2. 세명대학교 한방병원들에서도 현재 양/한방 협진을 진행하고 있나요? 협진을 진행 중이시라면 어떤 형태로 진행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병원 양방과는 가정의학과와 유사하며,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한약을 쓰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양약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양방과에 의뢰를 넣어서 같이 논의한 후, 처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병원은 규모가 커서 이런 과정을 거치기 좋은 대신, 한방에 반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규모가 작은 대신 이런 반감을 갖는 경우는 적습니다. 또, 같이 잘 지내지만, 규모가 작은 데에서 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현재 양방선생님께서 충주에 한 분, 제천에 한 분 계신 상황인데, 한분이시다 보니까, 과의 구분 없이 진료를 보고 계십니다. 병원 혈액검사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건 병원에서 진행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임상병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방사선 역시, 방사선 전문의가 판독을 해주는 곳으로 의뢰를 맡기면서 판독을 받고 있습니다.

3. 세명대학교의 경우 2020년에 2주기 인증평가에 들어가는데, 대학에서는 다가오는 2주기 인증평가 또는 KAS2021에 대비해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교육담당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세명대학교의 경우, 교육인증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환자군’에 대한 실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환자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서 뽑는 모의 환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의환자는 본과 2학년 아래의 학생들 중 몇 명을 모집해서 교육 시킵니다. 이를 조금 더 확대하여 연극배우 같은 분들을 섭외하고 학생 수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전교육과 환자 역할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추가로 더 공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자를 받아서, 매뉴얼대로 환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CPX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환자를 볼 때 잘한 점이나 부족한 점 등을 확인하며 구체적인 항목을 바탕으로 점수화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임상실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주병원과 제천병원에서 한 조당 3~5명씩 총 12조로 진행해서 배우고 토론하며 공부하는 데에는 적당한 인원으로 좋은 환경입니다. 충주 병원에 6개, 제천 병원에 6개 조로 12주를 진행하고 중간중간 시험을 보기도 하며, 실습이 강화되어 한 번 돌아왔던 과를 다시 돌 때도 있습니다.

6. KAS2021에는 외부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다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세명대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임상실습환경의 다변화를 하고 계신가요?

최대한 다양한 외부의료기관과 연계하고자 노력중입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한의원 측에서 학생들에게 실습 해주고 싶어 하는 곳을 찾거나,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을 추가로 등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배울 점이 있겠다 싶은 곳은 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확실히 아는 것은 아닙니다.

7.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나요?

제천은 강원랜드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강원랜드 사회복지팀과 함께 진료를 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에서 진행하는 한방축제가 가을에 열리는 데, 그 때 무료로 진료를 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천시청과 협조하여 해당 예산을 받아서 제천 내의 오지나 시내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천 한방병원은 이런 외부 봉사 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오히려 실습보다도 직접 환자를 마주할 수 있는 기회여서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환자를 학생이 볼 수는 없어서 지도교수가 같이 가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8. 교육수련병원을 보유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의과/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 수련비율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세명대학교의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세명대학교 한방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련의가 일 년에 3~4명 정도 들어와서, 연차별로 3명 정도 있다고 하면, 각 병원마다 총 13명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제천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뽑아서 인턴 4명에서 레지던트 10명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베드 수와 비교해서 보면 이 인원이 다 차면 충분하게 병원이 운영되어서 평상시에는 거의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 활동과 같은 외부 활동에도 수련의가 같이 나가기도 해서,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9. 점점 많은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이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학생들의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의를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도 나가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보통 졸업할 때쯤 되면 나가서 환자를 잘 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학교 교육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환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상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환자를 보는 것에 대한 적응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PX와 PBL실도 만들어서 실습을 진행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사람을 치료함에 있어 한의학과 서양 의학을 구분 짓지 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서양 의학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한의학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서양 의학도 공부한 후에 두 학문을 비교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서양 의학적인 공부가 부족한 상태에서 한의학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우물 안의 개구리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보면서 한의학적인 부분, 서양 의학적인 부분을 매치시켜서 환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수련의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머리가 많이 아프면 양방에서는 CT, MRI 등의 검사 실시 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정상이지만 계속 아프면 신경안정제 등 정신과로 넘어갑니다. 이에 반해 같은 환자가 한의원으로 온다면 이 환자는 중환자로 침, 부항 등 모든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머리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 한의원에 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양방에서 검사를 진행했을 때 뇌종양이어서 중환자일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병이 있다고 꼭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아프다고 검사 상으로 꼭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후를 알려면 현대적인 기기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는 아프지 않은데 뇌종양이 있는 경우 기기의 도움으로 이 사람이 언제가 죽는지, 언제 위험해질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맥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를 보지 않는 기초 교수님들의 생각과 환자를 직접 보는 임상 교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한의학, 서양 의학 전부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한의학, 서양 의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영양학, 운동학 등도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처방 50개, 100개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병은 어디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서양 의학이 수술을 잘할지 몰라도 한계가 많은데, 쓸 수 있는 약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알레르기, 아토피 등을 관리할 수는 있지만 고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병들은 한의학과 운동 등을 활용하면서 보조적으로 양약을 써야 합니다. 한방약은 부작용이 적으면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병들을 치료하는데 양약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같이 활용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공부 없이 사회에 바로 나가서 개업하고 돈을 벌기만 한다면 한의사의 전반적인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수련의를 할 때는 넓게 공부하고 좀 더 배워서 환자를 정확하게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의학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것이 좋습니다.

9-1.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부원장으로 바로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졸업하고 취직을 해버리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 몇 년 더 빨리 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안에서 환자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본과 3, 4학년 때 임상 과목도 공부하고 실습도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실습은 수련의 과정이지, 본과 3, 4학년은 그냥 구경하다 가는 것에 가깝습니다.

10. 학부 시절에 학교 교육 이외의 학회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돈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배우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를 배우게 되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11. 현재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의 선상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해주실 따뜻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기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초 과목도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임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임상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론과 임상에는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의사가 한의학을 공부하지 않고는 한의학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를 가르치더라도 임상을 하신 분이 기초를 가르치고 임상을 하시는 분들도 좀 더 기초를 공부해서 임상과 연결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더 고민하지 않는 이상 이 괴리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의과대학의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전국 12개 대학의 한의과 교수님의 수를 다 합쳐도 큰 의과대학 하나의 기초, 임상 교수님의 숫자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와 임상을 괴리감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환자를 보는 것이 목적이려면 임상에 비중을 좀 더 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1. 방제학 같은 경우에는 임상을 하신 교수님이 임상에서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방제학 교수님이 쉽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 임상에서 같은 약을 환자들에게 써도 반응이 다양합니다. 양약처럼 임상적인 부분에서 정립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다(통일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한약 자체도 정립이 완벽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약재의 효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처방에 약재를 넣었을 때 기대되는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삼과 산삼의 차이, 제배 방식의 차이 등등)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감기를 예로 들면 양약은 3000원어치 약을 처방 받으면 2-3일 만에 좋아지지만 한의학은 한 濟를 써야하는데 한 濟가 25만원입니다. 3000원짜리 3일 먹으면 좋아지는 것을 25만원을 20일 동안 달이거나 데워서 먹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가장 그 병원을 잘 압니다. 병원의 직원이 자신의 병원을 믿을 수 있어서 어떠한 병이 있을 때 와서 약을 지어 먹고자 하는 병원이 성공한 병원입니다. 근데 한약 공부만 해서 양약을 쓰면 빠른 경우를 모르고 한약만을 쓰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과 양약을 다 공부해서 한약이 좋을 때는 한약을 안내해드리고 서양 의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안내를 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임상과 기초를 맞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 한의학과 서양 의학이 없고 심리학과 운동학이 따로 없습니다. 다 공부해야 합니다. 한의학은 정량화와 획일화가 잘 안 되어있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 많이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안 하면 돌팔이처럼 됩니다.

11. 우석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사서강독1	2	2	0	
		의학사1	2	2	0	
		중국어회화1	2	2	0	
		생명과학개론	2	2	0	
		한의학개론1	2	2	0	
		의학한문1	2	2	0	
		의료윤리	2	2	0	
		의철학	2	2	0	
	2	사서강독2	3	2	1	
		의학사2	2	2	0	
		한의학개론2	2	2	0	
		의학한문2	2	2	0	
		의학용어	2	2	0	
예과 2학년	1	면역학	2	2	0	
		생화학	2	2	0	
		원전1	3	4	0	
		해부학및실습1	5	4	4	
		양방생리학1	2	2	0	
	2	발생학1	2	2	0	
		원전2	3	4	0	
		해부학및실습2	5	4	4	
		본초학및실습1	4	4	2	
		양방생리학2	2	2	0	
		생리학및실습1	4	4	2	
본과 1학년	1	경혈학및실습1	4	4	2	
		본초학및실습2	4	4	3	
		생리학및실습2	4	4	2	
		약리학1	2	2	0	
		양방병리학1	2	2	0	
		예방의학1	2	3	0	
		원전3	3	4	0	
		조직학1	1	2	0	
	2	경혈학및실습2	4	4	3	
		본초학및실습3	4	4	3	
		병리학및실습1	3	4	2	
		약리학2	2	2	0	
		양방병리학2	2	2	0	
		예방의학2	2	3	0	
		원전4	3	4	0	
		조직학2	1	2	0	
본과 2학년	1	경혈학및실습3	4	4	3	
		방제학및실습1	3	4	2	
		병리학및실습2	3	4	2	
		상한론1	2	2	0	

		양방진단학1	2	2	0	
		온병학1	1	2	0	
		진단학및실습1	3	2	2	
		특성화실습	1	0	2	
	2	면역학	2	2	0	
		방제학및실습2	3	4	2	
		부인과학1	2	3	0	
		상한론2	2	2	0	
		소아과학1	1	2	0	
		신경정신과학1	1	2	0	
		양방진단학2	2	2	0	
		온병학2	1	2	0	
		진단학및실습2	2	2	2	
		침구의학1	2	4	0	
본과 3학년	1	간계내과학1	1	2	0	
		심계내과학1	1	2	0	
		비계내과학1	1	2	0	
		폐계내과학1	1	2	0	
		신계내과학1	1	2	0	
		부인과학2	2	3	0	
		사상체질의학1	2	3	0	
		소아과학2	1	2	0	
		신경정신과학2	1	2	0	
		영상의학	1	2	0	
		침구의학2	3	6	0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1	2	3	0	
		한방재활의학1	1	2	0	
	2	간계내과학2	1	2	0	
		심계내과학2	1	2	0	
		비계내과학2	1	2	0	
		폐계내과학2	1	2	0	
		신계내과학2	1	2	0	
		부인과학3	2	3	0	
		사상체질의학2	2	3	0	
		선택임상실습	2	0	4	
		소아과학3	1	2	0	
		신경정신과학3	1	2	0	
		침구의학3	3	6	0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2	2	3	0	
		한방재활의학2	1	2	0	
본과 4학년	1	추나학및실습1	2	1	2	
		내과학및실습	1	1	2	
		부인과학및실습	1	1	2	
		사상체질의학및실습	1	1	2	
		소아과학및실습	1	1	2	
		신경정신과학및실습	1	1	2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및실습	1	1	2	
		침구의학및실습	1	1	2	
		한방재활의학및실습	1	1	2	
		보건의료법규	2	2	0	
		양방임상실습1	2	0	4	

		응급의학	2	2	0	
		추나학및실습2	2	1	2	
	2	내과학실습	2	0	4	
		부인과학실습	2	0	4	
		사상체질의학실습	2	0	4	
		소아과학실습	2	0	4	
		신경정신과학실습	2	0	4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 실습	2	0	4	
		침구의학실습	2	0	4	
		한방재활의학실습	2	0	4	
		양방임상실습2	2	0	4	
		의료관리	2	2	0	

② 전공선택과목

대상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실기 (시수)	비고
예과 1학년	2	의학사2	2	2	0	
		중국어회화2	2	2	0	
		생명과학	2	2	0	
		한의학용어	2	2	0	
예과 2학년	1	중국어강독1	2	2	0	
	2	중국어강독2	2	2	0	
본과 1학년	1	난경	2	2	0	
	2	각과학설	2	2	0	
본과 2학년	1	금궤요략	2	2	0	
		동의보감	2	2	0	
	2	경외기혈학(동씨기혈)	2	2	0	
		의학통계(한의학정보학)	2	2	0	
본과 3학년	1	임상본초학	2	2	0	
		임상해부학	2	2	0	
	2	한방레이저치료학	1	1	1	
본과 4학년	1	임상기기진단학	2	2	0	
		임상영양학	2	2	0	
		임상특강1	2	2	0	
	2	노인병학	2	2	0	
		임상특강2	2	2	0	

2) 병원 방문 면담록

1) 방문장소 : 우석대학교부속한방병원

2) 방문일자 : 2020년 8월 25일

3) 방문자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안병웅(가천대), 교육국장 한승훈(동국대), 홍보국장 강민수(우석대)

- 교육집행위원 : 김태준(대전대), 최호진(가천대), 허운(원광대)

4) 면담교수님 : 우석대학교 고연석 교수님(한방재활의학과장)

1.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만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가 사용하는 캠퍼스가 나뉘져 있습니다. 예과생들은 삼례캠퍼스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본과생들은 여기 중화산캠퍼스의 한의학관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예과와 본과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오늘 방문하신 중화산캠퍼스의 한의학관은 대체로 내부 시설이 노후화되지 않고 쾌적한 편이며, 학생 전용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특히 장점입니다. 또, 중화산캠퍼스는 병원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교수님과 교류가 잘 되는 편입니다. 본과생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끼리 맺는 깊은 교우 관계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대체로 젊으십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수님들께 다가가는 데 큰 불편함이 없어, 소통이 보다 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학생들을 집중 관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OSCE와 같은 술기실습과 PBL 학습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추 수 있었습니다.

병원의 경우, 저희 우석대학교에는 부속 병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병원에 교수 충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편입니다. 현재 한 병원에 임상 교수님만 14분이 계신 상황인데, 많은 교수님들이 계시고, 모든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이 한 병원 내에서 모든 과를 다 돌며 실습할 수 있습니다.

2.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에서도 현재 양/한방 협진을 진행하고 있나요? 협진을 진행 중이시라면 어떤 형태로 진행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 중, 양방 처치가 필요한 케이스가 있을 경우, 저희 내부의 양/한방 협진 체계에 따라 협진 중입니다. 협진이 이루어지는 환자의 케이스는 대부분 통증환자거나, 내과 환자입니다. 또, 영상의학과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저희가 검사했을 때 사진을 보고 실질적으로 환자가 갖고 있는 질환 중 의심 되는 게 있으면 바로 바로 체크가 가능합니다.

여담으로, 병원 실습과목에 양방임상실습도 포함되어 있어, 초음파 실습 등을 진행 중입니다.

2-1. 협진 시에 양방에서 한방으로 트랜스퍼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우석대 내 양방병원은 실질적으로 검진 위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료를 보기 위해서 우석병원을 찾는 케이스는 잘 없습니다. 따라서 양방에서 한방으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방치료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환자분들을 보내주십니다. 반대로 한방에서 의뢰하는 환자 분들을 관리해주시기도 하고요.

3. 우석대학교의 경우, 교육인증평가에 기재되어 있는 ‘필수 환자군’에 대한 실습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필수 환자군’으로 할당된 질환 항목들은 어느 정도 정리 됐습니다. 우석대는 2019년에 2주기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2주기 평가 당시엔 양적인 면을 많이 평가 했고, 앞으로 교육적인 부분을 많이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상 술기 강화는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추가 보완할 예정이에요.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변화를 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의학 계열처럼 통합 실습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수님들께서 PBL 수업을 잘 진행 중이시고, OSCE도 제시된 목록에 따라 시행하는 중입니다.

4. 현재 임상실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교육과정 상, 학생들이 본과 2학년까지는 주로 기초한의학과목 파트를 배우고, 본과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상과목을 배우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습은 본3 겨울 방학 때부터 시작해요. 기본적으로는 본 병원에서 실습이 이뤄집니다. 부족한 부분은 OSCE, CPX, PBL을 통해 학습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치의 및 전공의/수련의 선생님들 지도 아래에, 병동 입원 환자까지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KAS2021에는 외부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다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우석대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임상실습환경의 다변화를 하고 계신가요?

본과 4학년 여름 방학에는 선택임상실습으로 한의원 실습을 진행합니다. 학교에서는 보통 15개 정도 한의원을 선정하여 협약을 맺어 학생들이 실습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임상실습은 일주일에 한의원 한 군데씩, 3주 동안 3개 한의원을 도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또, 본과 3학년의 경우에는, 통합 실습으로, 한의원 외의 유관기관에서 하는 실습을 진행 중입니다. 학회, 외부한방병원, 한의학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을 학생들이 선택하여 여름 방학 동안 체험을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학술제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6.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나요?

병원에선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같은 단체에서 의료 봉사 협조가 올 시 참여합니다. 그 외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금연 사업에 참여 중이에요. 이와 관련한 교육도 진행 중입니다.

연구 프로젝트 또한 전북 지역 사회와 연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7. 교육수련병원을 보유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의과/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 수련비율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우석대학교의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석대 한방 병원 수련의는 부족합니다. 8개 과에 14분의 교수님이 한 병원에 있다 보니까 각 과별로 수련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수련 공간을 포함한 병원 여건을 고려했을 때, 수련의 숫자를 쉽게 늘리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한방 병원들이 비슷한 처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대학 병원 수련의는 감소 추세입니다. 저희는 현재 매년 3-4명의 수련의를 선발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수련의 숫자를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때로는 뽑고 싶어도 없어서 못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께서는 항상 수련의 선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희망하시긴 하지만, 이것은 한의과대학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8. 점점 많은 학생들이 전문의 수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이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학생들께서 수련의를 하게 되면 연구와 임상을 함께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과정까지 꼭 안 마치더라도 병원 생활을 해보는 건 추천합니다. 수련의 지원 시에는, 가급적이면 대학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 병원에는 전문적인 수련의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어, 교수님들께서 수련의들에게 좀 더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한의사 직군이 미래의 의료체계에 자리 잡기 위해서, 일반의 중심의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지, 전문의 중심 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지에 대해 교수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전문과를 표방하는 로컬 한의원에서 의과처럼 특정 환자만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의학과 한의원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과를 다루는 한의원이 있다 하여도, 그것에 대한 니즈가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여 대부분 로컬 한의원에서는 통증환자들을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정도를 예외로 둘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의 전문의라고 해서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가 특히 더 높다거나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문의 체계가 잡힌다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10. 현재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의 선상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해주실 따뜻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기존의 한의대 교육 자체가 한의학적인 요소에 편중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양방적 요소를 전혀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방 변증이나 한방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진단의 영역에서 양방이 많이 관여합니다. 특히 여러 정량적 지표나 진단적 지표에 관한 것들은 양방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한의계에서는 이 둘의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 중입니다. 기초 과목을 할 때 양방적인 부분도 충분히 관심을 많이 갖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학생들께서는 한의학에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본인이 한의대를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보아서, 적절한 목표의식을 가지시면 이러한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 원광대학교

1) 2020학년도 전공과목 개설현황 도표

① 전공기초/전공필수 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	의학용어1	1	2	0	
		한문1	2	2	0	
		기초중국어1	1	2	0	
		경서강독1	1	2	0	
		한의학개론	1	2	0	
		일반화학1	2	2	0	
		일반화학실험1	1	0	2	
		일반생물학1	2	2	0	
		일반생물학실험1	1	0	2	
	2	일반화학2	2	2	0	
		일반화학실험2	1	0	2	
		일반생물학2	2	2	0	
		일반생물학실험2	1	0	2	
		의학용어2	1	2	0	
		한문2	2	2	0	
		경서강독2	1	2	0	
		기초중국어2	1	2	0	
		한의학개론2	2	2	0	
예과 2학년	1	한의학한문1	1	2	0	
		의철학	2	2	0	
		조직학1	1	2	0	
		조직학실습1	1	0	2	
		해부학1	3	4	0	
		의학사1	1	2	0	
		본초학총론	1	2	0	
		원전학1	3	4	0	
		해부학실습1	1	0	2	
	2	한의학한문2	1	2	0	
		조직학2	1	2	0	
		조직학실습2	1	0	2	
		의역학	1	2	0	
		의학윤리	1	2	0	
		해부학2	3	4	0	
		의학사2	1	2	0	
		원전학2	3	4	0	
		해부학실습2	1	0	2	
본과 1학년	1	본초학실습1	1	0	2	
		본초학1	3	4	0	
		각과학설	2	3	0	
		본초학2	3	4	0	
		생리학1	3	4	0	
		경혈학총론	2	2	0	

		양방생리학1	1	3	0	
		양방생리학실습1	1	0	2	
		원전학3	1	2	0	
		생화학	2	3	0	
		예방의학1	2	3	0	
	2	본초학3	3	4	0	
		생리학2	3	4	0	
		경혈학1	2	2	0	
		경혈학실습1	1	0	3	
		양방생리학2	1	2	0	
		양방생리학실습2	1	0	2	
		상한론1	2	3	0	
		생리학실습	2	0	4	
		원전학4	1	2	0	
		예방의학2	2	3	0	
본과 2학년	1	병리학실습1	1	0	2	
		방제학실습	1	0	2	
		경혈학3	1	2	0	
		의료법규	2	3	0	
		병리학1	3	5	0	
		양방병리학1	1	2	0	
		경혈학2	2	2	0	
		경혈학실습2	1	0	3	
		방제학1	3	4	0	
		약리학1	1	2	0	
		약리학실습1	1	0	2	
	2	상한론2	2	3	0	
		병리학실습2	1	0	2	
		응급의학	1	2	0	
		방제학2	3	4	0	
		영상의학	1	2	0	
		온병학	1	2	0	
		병리학2	3	5	0	
		양방병리학2	1	2	0	
		약리학2	1	2	0	
		약리학실습2	1	0	2	
		진단학1	2	3	0	
본과 3학년	1	침구의학1	2	3	0	
		사상체질의학1	1	2	0	
		재활의학과학1	1	2	0	
		진단검사의학1	1	2	0	
		진단학실습	1	0	2	
		침구의학2	3	4	0	
		사상체질의학2	1.5	3	0	
		재활의학과학2	1.5	3	0	
		간계내과학1	1	2	0	
		심계내과학1	1	2	0	
		비계내과학1	1	2	0	
		폐계내과학1	1	2	0	
		신계내과학1	1	2	0	
		소아과학1	1	2	0	

		부인과학1	3	4	0	
		안이비인후피부과학1	2	3	0	
		신경정신과학1	1	2	0	
		추나의학	1	2	0	
		진단학2	1	2	0	
	2	양방진단학	1.5	2	0	
		진단검사의학2	1	2	0	
		침구의학3	3	6	0	
		간계내과학2	1.5	2	0	
		심계내과학2	1.5	2	0	
		비계내과학2	1.5	2	0	
		폐계내과학2	1.5	2	0	
		신계내과학2	1.5	2	0	
		소아과학2	2	3	0	
		부인과학2	2	3	0	
		안이비인후피부과학2	2	3	0	
		신경정신과학2	2	3	0	
		추나의학실습	1	0	2	
본과 4학년	1	임상술기실습1	1.5	0	3	
		직무체험실습1	3.5	0	7.5	
		임상각과실습A-1	5	0	10	
		임상각과실습B-1	5	0	10	
		임상각과실습C-1	5	0	10	
	2	임상술기실습2	3.5	0	7	
		직무체험실습2	1.5	0	3.2	
		임상각과실습A-2	5	0	10	
		임상각과실습B-2	5	0	10	
		임상각과실습C-2	5	0	10	

② 전공선택과목

대상학년	학기	교과목명	학점	이론(시수)	실습/실기(시수)	비고
예과 1학년	1-2	의료리더쉽	1	2	0	
예과 2학년	2-1	중급중국어1	1	2	0	
		발생학	1	2	0	
		양생기공학	1	2	0	
		세포학	1	2	0	
	2-2	중급중국어2	1	2	0	
		유기화학	1	2	0	
본과 1학년	1-1	분자생물학	1	2	0	
		운기론	1	2	0	
		미생물학	1	2	0	
	1-2	면역학	1	2	0	
		심리학	1	2	0	
		의료정보학	1	2	0	
본과 2학년	2-1	통합의학	1	2	0	
	2-2	예방한의학	1	2	0	
		법의학	1	2	0	

2) 병원 방문 면담록

- 1) 방문장소 :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 2) 방문 일자 : 2020년 8월 26일
- 3) 방문자
 - 상임위원회 : 교육국장 안병웅(가천대), 교육국장 한승훈(동국대)
 - 교육집행위원 : 최호진(가천대), 허운(원광대)
- 4) 면담교수님 : 이정환 교수님(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장)

1.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만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광대학교는 학교도 오래 되고, 한의대도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됐다고 해서 장점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죠. 다른 대학에 비해 학생 수나 교원 수가 많은 것도 특징입니다. 원광대학교는 한의과대학 말고도 의대, 치대, 약대, 보건대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의학계열의 배출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것입니다. 원광학원 휘하에 있는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약학대학 네트워크도 강합니다. 이는 배출되는 의료 인원이 많고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한방병원 부속병원이 나란히 위치한 덕분입니다.

또, 저희 병원은 한방 중풍 분야로 전문 병원 인증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인증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제 1호 중풍전문병원으로 원광대학교 익산병원이 선정 될 것입니다.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들에서도 현재 양/한방 협진을 진행하고 있나요? 협진을 진행 중이시라면 어떤 형태로 진행 중이신지도 궁금합니다.

한/양방 차트시스템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내원 시 추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방 병원 재활과에 양방재활의학과 교수님이 계셔서, 따로 병원에 접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상기기 촬영이 가능한 식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병원은 양/한방 간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풍 쪽 질환의 협진 체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만약 저희병원에 중풍환자가 내원하게 된다면, 우선 양방병원에서 초기, 급성기, 아급성기 중풍에 대한 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 및 수술이 완료된 환자들은 이제 한방병원에서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의학이 후유증 방지 및 근골격계 통증에 강점이 있다 보니, 저희 병원에서는 재활 쪽에서 협진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풍수술 외에도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한 환자들은 대부분 한방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협진을 하는 것을 정형외과에서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재활 환자들의 경과 개선이 눈에 띄게 보이니, 점차적으로 협진이 잘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양방인지 한방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병원의 모토는 일원의학 정신을 바탕으로 한 ‘질병 치료를 넘어서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이러한 저희만의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 등 협진 임상 관련 내용을 논문으로 많이 발표한 상태예요. 차후에는 안면부 외상환자에 대해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와 협진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기도 합니다

2-1. 비교적 양방과의 협진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병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는 양방병원과 한방병원이 캠퍼스 내에 함께 위치하며,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이동이 용이하거든요. 보통 양방병원에서는 급성질환을 많이 보고, 한방은 만성질환을 위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개 의과 병원은 진단 검사를 통해, 한방 병원은 치료비를 통해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 정착해 있습니다. 의과의 재원일수는 일반적으로 8일 미만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수록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한방 쪽은 반대로 재원 일수를 늘려가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협진의 수요를 창출할 때는 양방병원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학교의 경우 한/양방 교수님들 간에 소통이 매우 활발한 편입니다. 순환기내과와 신경과에서 중풍 환자를 보고, 한방으로 transfer하시기도 하고, 정형외과 교수님이 수술을 하고 나면 한방에서 재활을 하라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평소 양방 선생님들과 세미나와 회의도 자주 하면서, 수술 환자의 주의해야 할 점 등에 관해서 논의하며, 만약 환자가 한방에서 재활하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견되면 한방에서 다시 양방으로 transfer해서 다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며 상호 간의 치료를 존중하며 필요시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원광대에 위치한 전북권역외상센터에서도 환자의 급성기 외상이 치료되어 일정 수준 회복되면, 재활을 한방으로 transfer하고 있습니다.

3. 원광대학교는 KAS2021의 선두주자로, 2021년에 KAS2021 인증평가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다가오는 2주기 인증평가 또는 KAS2021에 대비해서,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음 우선 저희 원광대학교가 원해서 KAS2021의 선두주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기존의 인증평가를 항상 먼저 받아왔기 때문에 순서 상 그렇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은 한의과대학 학장님께서 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 교수님과 임상 교수님들 일부가 교육과정개선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KAS2021 관련 내용은 위원장님이나 간사인 교수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 저희학교에서 KAS2021 관련 회의를 세 차례 정도 진행했습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이신 신상우 교수님을 모시고 세미나도 진행했으며, 내일(방문일 기준) 부산대 교수님을 초빙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 개선이나 비전, 방향성 등은 교육과정개선위원회 교수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후 담당교수님들께 서면 질의를 하였지만, KAS2021을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세부내용을 전달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원광대학교에서는 교육인증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나와 있는 OSCE, CPX, PBL 등의 모의 실습을 하기 위한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인가요?

원광대학교의 임상술기센터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임상술기센터를 참고해서 만들었고, 설립 당시 부산대학교 한의전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부산대학교는 국립대이니, 가장 처음으로 임상술기센터를 건립 했었거든요. 설립 후에는 센터장님을 포함한 다른 교수님께서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KAS2021 인증평가를 기점으로, 센터를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 임상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병원 실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상술기센터와 같은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프라가 교육인증평가를 통해 기존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가 갖추어져야 소프트웨어가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임상술기센터는 아직 발전 초기다보니, 당분간은 하드웨어를 확장하는 데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5. 현재 임상실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세 개의 조가 각 2개월 씩, 6개월 동안 전주, 익산, 광주에 위치한 3개 부속한방병원을 돌며 실습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다양한 임상실습환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분명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는 단점이 명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통합 실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6. KAS2021에는 외부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다변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원광대학교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임상실습환경의 다변화를 하고 계신가요?

현재 원광대학교에서는 병원 실습 이외에, 2주간 로컬 한의원 실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이 아니더라도 한의학연구원이나 의료 관련 기관(원외탕전, 연구시설)등에 방문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한의원과 외부의료기관의 협력을 위해, 학생들이 실습 다녀온 한 의원에 교육 인증기관 명패 같은 것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외부임상실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과 지자체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지역사회공헌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나요?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지만, 학교가 위치한 익산시(보건소 등)와 학교병원, 한의대 및 의대기초분야, 익산 내의 제약시설, 의료관련 기업들과 연계해서 희귀난치질환 관련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양방 빅데이터 사업도 꽤 크게 계획 중입니다.

8. 앞으로 한의계에 필요한 보건 의료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의료기사 지휘권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협회에서 추진하는 현대의료기기 사용권리 확대도 필요합니다. 다만, 양방과 한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 사진 판독을 할 때 영상의학과전문의와 한방재활의학과전문의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인체를 서양 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랑 동양 의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듯 말이죠.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제도적 발전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의사의 이권확대는 협회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고, 한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한의사를 배출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보편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교육수련병원을 보유한 한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의과/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의 수련비율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현재 원광대학교의 수련의나 전문의 지원 인원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원광대학교 한방 병원 TO는 다 채워지는 편입니다. 학생들의 수련의 지원은 많은 편인 거죠. 현재 미달이 나는 것은 아니니 지원 인원은 적정합니다.

10. 수련의나 전문의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이나 숙지할 사항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련의로 들어올 때 마음과, 수련의로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하고 나서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래서 힘들게 들어오고 나서 퇴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수련생활을 시작하기 전의 기대감과 현실에는 갭이 있음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개인의 의사와 조직의 뜻이 다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면, 100이면 100 조직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변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을 나가려고 하죠. 수련의가 나가게 되면, 병원에겐 상당한 인력 손실이며 같이 경쟁한 사람들에겐 굉장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라고 생각해요. 들어올 때의 마음가짐과 수련생활을 하는 동안의 마음가짐이 일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초심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장 훌륭한 의사는 기본에 충실한 의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레지던트 때는 잘 안 나가는데 인턴 때 많이 나가요. 이런 것이 곧 성실성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현재 한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서는, 기초교육과 임상교육의 선상에서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해주실 따뜻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는 한방재활의학과를 전공했고, 추나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추나는 술기죠. 이론을 바탕으로 술기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임상을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은 쉽습니다. 무엇이든 잘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기초와 임상의 괴리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고 보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공부 과정입니다. 임상과 기초과목은 단절된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이 충실한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라는 말이 있듯이 기초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해부, 생리, 병리, 진단, 치료를 6년 동안 배웁니다. 한의학적인 내용이든, 양방적인 내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임상은 진단과 치료에만 집중을 하는 과정이니, 나머지 세 가지 개념이 상대적으로 동떨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해부, 생리, 병리를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 진단 하에 최선의 치료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임상 과정은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정확한 진단 하에 효과적인 치료와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부, 생리, 병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이 일련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없다면 6개월 단기 속성으로 배우는 수지침이나 구당이 가르치는 침술과 다를 바 없죠. 저런 유사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순 테크니션입니다. 여러분들은 테크니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physician이란 사실을 늘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면책허용권리인 면허를 발급받기 때문에 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 초석이 단단하면 뭘 쌓아도 역경이 몰려와도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11-1. 양방적인 부분은 한의학도로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공부를 하다보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양의학과 한의학이 언어만 다를 뿐 상호 간 지향점은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차이점이라 해도 상대방이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영역의 구분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현재는 통합 학문 시대입니다. 이는 비단 모든 학문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항상 깨어있어야 하고, 죽을 때 까지 공부를 해야만 할 겁니다.

III. 결론 및 후기

《Contents》

- 1. 자료의 보완점
 - 한계점과 개선방향 논의
- 2. 활동 후기
 - 교육집행국원들의 후기

1. 자료의 보완점

이번 교육국 자료 내에도 한계점과 보완점은 명확히 존재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차기 교육국 분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여 전한련 내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국 자료를 만들 수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우선, 경희대학교와 부산대학교의 방문이 어려워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전한련 소속 단위가 아니므로 협조 요청에 어려운 부분이 명확히 있었지만, 부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자료집 발간 시점인 2021년 3월까지도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당시 면담일정을 잡지 못하여 방문하지 못했던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만약 추후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진다면 방문하지 못했던 단위들을 방문하면 좋을 것입니다. 경희대의 경우, 경희대가 전한련에 재합류를 하거나, 경희대와 업무 제휴를 맺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료 내에 KAS2021의 정량적 평가기준을 수록하였지만, 각 학교에서 해당 정량적 기준에 대해 현황이 어떠한 지를 수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각 학교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어 이에 대한 질의가 쉽지 않았습니. 만약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 학교의 교육집행국원 분들께서 각 학교 내의 교육위원회와 함께 해당 부분을 조사하여 수록한다면 보다 완성도 높은 자료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당부분을 수록하실 경우에는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수치적인 데이터를 보다 가시성 있는 자료로 수록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면담 당시 각 병원에 방문하는 인원이 상이하고, 시기도 달라 면담록에 각 학교의 혹은 각 학교 병원에 대해 수록된 내용이 면담의 질문 내용에 따라 상이했습니다. 물론 교육국 회의를 통해 공통질문지를 구성했지만, 면담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공통질문지 내에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었고, 각 학교의 면담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선이 모두 다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차기 교육국에서는 미리 교육국 자료에 수록할 내용들을 정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각 학교에 대면 혹은 서면으로 질의하기를 제언합니다.

앞으로의 전한련과 전한련 교육집행국에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활동 후기

전한련 교육국 활동을 통해 여러가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른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제가 다니는 학교와 비교해볼 수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제가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해나갈 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년동안 고생해주신 안병웅 교육국장님과 한승훈 교육국장님, 그리고 모든 교육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집행국원 가천대학교 최호진님>

저의 한의대 생활엔 보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학습 내용에 대한 허탈함 속 많은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인간은 특정 활동 덕분에 누군가가 도움을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 역시 인간인지라 보람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제가 해온 방향을 후배들은 할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을 위해, 학교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타 학교 학생들과 만나서 심도 있게 이야기 해보고, 각 학교 별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전한련 교육국 활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이 덕분에 작은 빛을 봤다 생각합니다. 2020년에 교육국이 만들어 온 이 흔적이 전한련의 새로운 문화가 되어 이어져, 한의계의 바람직한 후배-선배 네트워크를 재창조하는 단초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입학 전, 재학 중, 졸업 후, 어느 시기든 교육에 대한 내용은 만인의 관심사입니다. 안 국장님, 한 국장님의 노고와 함께 시간 보내고, 함께 고민한 다른 분들에게 후배들이 많이 감사할 것입니다.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감사드립니다. 2021년에 여전히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 역시 계십니다. 어떤 경우든, 한의계가 직면해온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어느 시점에 저희는 다시 만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 때 교육국 활동이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하며, 다시 만날 그 날 서로 더 멋진 모습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집행국원 원광대학교 허 윤님>

한의계 교육이 격동의 시기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각 학교별로 어떠한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각 학교가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것에 대해 전한련 교육국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전한련 교육국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큰 기회였습니다. 2020년 정말 수고 해주신 두 교육국장님들 및 교육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2021년에는 더 열심히 교육국 활동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집행국원 동국대학교 이진호님>

교육국 활동을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기존의 학부생활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어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 했던 교과과정을 비롯한 한의계의 이슈나 안전들에 대해 고찰해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또한 들을 수 있어 저에게는 정말 의미가 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한련이 학생단체로서 하는 많은 활동들이 더 많은 한의대생들에게 알려지고, 재생산된다면 좋은 방향을 만들어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병웅 국장님과 한승훈 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노고로 인해 발간된 이번 2020 교육국의 자료집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교육적인 이슈에 대해 학우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해주신 교육국장님들과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집행국원 대전대학교 김태준님>

전한련 교육국 활동을 통해 각 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비록 원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 한의대 학생으로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좋았습니다. 한의대생들이 교육과정에 관심을 갖고 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싶네요. 그동안 수고해주신 교육국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교육집행국원 동의대학교 송수민님〉

한의학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한의학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학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운 좋은 기회로 이번 교육국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여 자교는 물론 다른 한의과대학과 마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생각도 못했던 문제를 발견하기도, 문제라 생각한 부분이 이미 큰 개선이 이루어져 있기도, 각 학교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맹자에서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기에 누구나 불의에 분노한다고 한다. 하지만 앎이 없다면 무엇에 화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투정일 뿐이다. 2020년 전한련 교육국에서 진행한 이 활동이 한의학 교육 개선을 위한 앎이 되었으면 하기를 바란다. 분노에서 멈추지 말고 기쁨으로 화할 수 있는 첫 분수령 말이다. 이 일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안병웅 회장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린다. 또 유례없는 전염병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께 노력해주신 교육국 위원분들 모두 감사의 말씀 드린다.

〈교육집행국원 가천대학교 윤지환님〉

교육국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분들과 만나고 교육 실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일년동안 고생해주신 교육국 학생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교육집행국원 세명대학교 이기은님〉

학교 안에서는 만날 수 없었던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학생인 만큼 교육에 대해 고민할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뜻깊었습니다! 물론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같이 안고 나아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매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늘 성실한 참여로 함께해준 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교육집행국원 세명대학교 김소연님〉